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박명호

2015. 12



목 차

I 서론	1
II 납세의식 및 주요 변수의 측정방식 개관	3
1. 납세의식 지표	3
가. 납세의식 개념	3
나. 납세의식 관련 지표의 생성	4
2. 주요 변수의 생성 방법	5
가. 조세제도에 대한 형평성 인식	5
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7
다. 사회적 규범	8
라. 국세행정에 대한 인식	10
III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12
1.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12
2. 기술통계량	21
가. 응답자 특성	21
나. 납세의식 관련 변수	25
다. 기타 변수	32
3. 분석 결과	60
가. 주요 납세의식 관련 지표 분석	60
나.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	68
다. 성실납세성향,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70

라. 국세청 신뢰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80
IV 결론 및 시사점	83
1. 분석결과 요약	83
2. 분석 결과의 시사점	84
참고문헌	86
부록: 납세의식 조사와 관련된 설문지	87

표목차

〈표 Ⅰ-1〉 중기재정총량 추이	2
〈표 Ⅲ-1〉 조사 내용	12
〈표 Ⅲ-2〉 진행 기록표(예시)	13
〈표 Ⅲ-3〉 모집단 분포(성×연령×고용형태)	14
〈표 Ⅲ-4〉 모집단 분포 비율	14
〈표 Ⅲ-5〉 표본 분포	15
〈표 Ⅲ-6〉 표본 분포 비율	16
〈표 Ⅲ-7〉 모집단 및 표본 분포(지역별)	17
〈표 Ⅲ-8〉 회수 현황	18
〈표 Ⅲ-9〉 지역별 회수 현황	19
〈표 Ⅲ-10〉 응답자 현황	20
〈표 Ⅲ-11〉 인구통계학적 특징	22
〈표 Ⅲ-12〉 연평균 소득 수준	24
〈표 Ⅲ-13〉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26
〈표 Ⅲ-14〉 적발 가능성이 없을 시, 세금을 회피할 의향 여부	28
〈표 Ⅲ-15〉 가상 납세순응행위 Ⅰ	30
〈표 Ⅲ-16〉 가상 납세순응행위 Ⅱ	32
〈표 Ⅲ-17〉 수직적 형평성	33
〈표 Ⅲ-18〉 수평적 형평성	35
〈표 Ⅲ-19〉 교환의 형평성	37

〈표 III-20〉 세금 인지 정도	39
〈표 III-21〉 부가가치세율 인지 여부	40
〈표 III-22〉 현금영수증의 최저발급 금액의 인지 여부	42
〈표 III-23〉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44
〈표 III-24〉 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46
〈표 III-25〉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정도	47
〈표 III-26〉 부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면 친구의 부정적인 인식 정도	49
〈표 III-27〉 소득세 정기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	51
〈표 III-28〉 탈세 적발 시 벌금 등 처벌 수준	53
〈표 III-29〉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55
〈표 III-30〉 납세협력부담에 대한 인식	57
〈표 III-31〉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59
〈표 III-32〉 납세의식 관련 지표들의 점수	61
〈표 III-33〉 주요 인구특성별 비경제적 요인 변수 차이	66
〈표 III-34〉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9
〈표 III-35〉 성실납세성향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72
〈표 III-36〉 사회적 규범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74
〈표 III-37〉 조세형평성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78
〈표 III-38〉 외생변수가 국세청 신뢰 변수에 미치는 영향	81

그림목차

[그림 III-1]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27
[그림 III-2] 적발 가능성이 없을 시, 세금을 회피할 의향 여부	28
[그림 III-3] 가상 납세순응행위 I	30
[그림 III-4] 가상 납세순응행위 II	31
[그림 III-5] 수직적 형평성	34
[그림 III-6] 수평적 형평성	35
[그림 III-7] 교환의 형평성	36
[그림 III-8] 세금 인지 정도	38
[그림 III-9] 부가가치세율 인지 여부	41
[그림 III-10]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43
[그림 III-11]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44
[그림 III-12] 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45
[그림 III-13]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정도	48
[그림 III-14] 부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면 친구의 부정적인 인식 정도	49
[그림 III-15] 소득세 정기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	51
[그림 III-16] 탈세 적발 시 벌금 등 처벌 수준	53
[그림 III-17]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55
[그림 III-18] 납세협력부담에 대한 인식	57
[그림 III-19]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59

I

서론

- (재정수입 여건의 변화) 지난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보다 낮았고 2015년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국세수입 예산을 하향 조정하였음
 - 예산보다 낮은 세입 실적은 구조적으로 세수입의 GDP 탄력성이 하락한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음
 - － 중기계획 기간(2015~19년) 동안 국세수입은 명목GDP보다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국세수입의 부양성을 0.77로 잡음
- (재정지출 여건의 변화) 복지수요의 증가로 의무지출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인구고령화와 복지제도 성숙 등으로 지출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6.1%씩 증가하고, 특히 복지분야의 법정지출은 연평균 6.7%씩 증가하여 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재정총량 측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중기계획 기간 내내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음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1-1〉 중기재정총량 추이

(단위: 조원, %)

	' 15 ¹⁾	' 16	' 17	' 18	' 19
▣ 관리재정수지	△33.4	△37.0	△33.1	△25.7	△17.7
(GDP 대비, %)	△2.1	(△2.3)	(△2.0)	(△1.4)	(△0.9)
※ 통합재정수지	7.0	4.8	10.1	20.4	30.6
(GDP 대비, %)	(0.4)	(0.3)	(0.6)	(1.1)	(1.6)
▣ 국가채무	595.1	645.2	692.9	731.7	761.0
(GDP 대비, %)	(38.5)	(40.1)	(41.0)	(41.1)	(40.5)

주: 1) 2015년의 경우 재정수지는 본예산(국회 확정) 기준,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 (증세정책의 제한) 이처럼 국가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입 확충이 필요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납세자인 기업과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확대 등의 증세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
- (세입 확충의 현실적인 대안) 어려운 재정여건과 증세정책의 제한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 세법 규정 아래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임
 -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여 스스로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고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
 - 대부분의 국세가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 자진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세입 확보에 있어서 중요
-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II

납세의식 및 주요 변수의 측정방식 개관

1. 납세의식 지표

가. 납세의식 개념

- 본 연구의 측정대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기존의 연구처럼 조세 전반에 대한 가치관 또는 총체적인 의식구조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하나의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내고자 함
 -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 납세의식에 대한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변수 또는 하나의 설문항목 응답 결과에 기초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함임
-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2008)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식 수준 지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함
 - 성실납세의향 지표와 납세순응행위 지표
 - 보조지표: 조세형평도 지표, 조세이해도 지표로 구성
- 납세의식 수준 지표로 성실납세의향 지표와 납세순응행위 지표를 사용한 이유
 - 성실납세의향 지표: Torgler(2011) 등의 연구에서는 ‘납세윤리(tax morale)’를 ‘납세에 대한 내재적 동기(the intrinsic motivation to pay taxes)’, ‘납세를 기꺼이 하는 마음상태(taxpayers' willingness to pay taxes)’, ‘납세순응에 대한 마음가짐(an attitude regarding tax compliance)’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성실납세의향 지표가 일종의 협의의 납세의식을 나타낸다고 보고, 이를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선정함

- 납세순응행위 지표: 납세자가 아무리 성실하게 납세할 의향이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납세순응행위도 주된 지표 중 하나로 사용함
 - 예를 들면, 동일한 성실납세의향 수준을 지닌 두 사람 중 한 명은 경제적 제약 등의 이유로 납세불순응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에 대해 납세의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에 납세순응행위 자체를 주된 지표로 선정함
 - 그러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닐 수 있고(예: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납세순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완전하지는 않다고 봄

나. 납세의식 관련 지표의 생성

- 다음에서는 납세의식 관련 지표들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설문을 제시함
- (성실납세의향) 성실납세의향 지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을 종합한 지표로 다음 2가지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생성함
 - 설문 응답 결과 성실납세의향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각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문8. 귀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①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
- ②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
- ③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 ④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문9. 귀하는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납세순응행위)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납세자가 설문 시 주어진 가상의 상황에서 탈세 또는 조세회피 행위를 선택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 2가지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생성함
- 각 설문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었기에 각 설문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문18.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8천 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천만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통한 매출액이었고, 나머지 1천만원은 현금 매출액이었습니다. 현금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 제3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적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을 정직하게 그대로 신고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9. 귀하가 50만원의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②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이므로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

2. 주요 변수의 생성 방법

- 본 절에서는 납세의식 형성 및 납세순응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들과 조세행정적인 변수들의 생성 방법에 대해 기술함

가. 조세제도에 대한 형평성 인식

- 조세형평성 지표는 일반 국민들이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및 교환의 형평성을 종합한 지표임

- 수직적 형평성: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평균 세율이 소득에 대해 증가하면 수직적 형평성이 있다고 함
 - 수평적 형평성: 소득수준이 유사한 사람들이 유사한 세부담을 지는 경우 수평적으로 형평하다고 함
 - 교환의 형평성: 자신의 납세수준에 비해 납세의 반대급부로서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혜택이 클수록 교환의 형평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존 연구문헌은 이런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임
- 형평이론(equity theory)¹⁾에 따르면, 조세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자는 납세순응행위를 덜 한다고 함
 - 수평적 형평성과 탈세의 관계를 실험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Spicer and Becker(1980)는 수평적 형평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임
 - 교환의 형평성과 탈세의 관계를 실험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Kim(2002)에 따르면 납세자는 본인이 낸 세금과 자신이 받는 공적 이전(public transfer) 또는 공공재 수준이 서로 독립적인 상황에서 탈세 수준이 높아 교환의 형평성이 납세순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형평도 지표를 세 가지 유형의 형평성 개념에 대응하는 설문을 한 가지씩 설계한 후 그 응답을 종합하여 생성함

1) 형평이론에 대한 소개는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2008)의 30-31쪽을 참조하기 바람

문10.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11. 귀하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③ 비슷한 수준이다
④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문12. 귀하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③ 적당한 수준이다
④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 ☐ 조세이해도 지표는 일반 국민들이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및 이와 관련 법규와 행정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종합한 지표임
- 조세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얼마나 숙지하는 것은 성숙한 납세의식 형성에 필요한 요소일 수 있음
- 그러나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 악용될 소지가 존재하기도 함
- ☐ 조세이해도 지표는 한 가지 주관적인 지식 수준과 두 가지 객관적인 지식 수준을 묻는 3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생성함

문5. 귀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③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공급가액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모른다

문7. 귀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최저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신지요?

- ① 금액에 상관없는 모든 거래 금액 ② 1천원 ③ 5천원
④ 1만원 ⑤ 모른다

다. 사회적 규범

- ☐ 사회적 규범은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계층 간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신념으로 정의됨(OECD, 2010)
 - 기존 문헌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 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하여 본인이 가진 생각은 그 사람의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함
 - Wenzel(2004)의 연구: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본인이 속한 또는 속하기를 바라는 준거집단의 사회적 규범을 내부화하고 그 사회적 규범에 맞게 행동할 것임을 보여줌
 - 동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동일시하는 준거집단에서 납세순응이 사회적 규범으로 성립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준거집단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납세순응행동을 할 것임
 - 스페인과 미국에서 똑같은 실험연구를 수행한 Alm, Sanchez and Juan (199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또는 문화적 환경이 다른 양국의 피실험자 집단 중 스페인의 피실험자 집단에서 납세순응이 더 낫다는 점을 발견함
 - 문화적 · 사회적 환경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실험실 환경에

서 벌어진 양국의 피실험자 집단 간 납세순응행위의 차이는 사회적 규범이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냄

-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OECD(2010)의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규범은 다른 결정요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중요함을 보여줌
 -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으로서 사회적 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국 중 6개 국가는 매우 중요, 7개 국가는 중요, 5개 국가는 어느 정도 관련 있다고 응답함
- 본 연구에서는 이해원(2012)을 따라 사회적 규범을 기술적 사회규범(descriptive social norm)과 명령적 사회규범(prescriptive social norm)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사회적 규범 지표를 생성함
 - 기술적 사회규범: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태도 또는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
 - 명령적 사회규범: 특정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태도 또는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

<기술적 사회 규범>

문1. 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2. 귀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명령적 사회 규범>

문3. 귀하는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4. 만약 귀하께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귀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라. 국세행정에 대한 인식

- ☐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행위와 관련되었다고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는 국세행정에 관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함
- 탈세의 발각 가능성, 탈세에 대한 처벌 강도, 탈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소득세 관련 납세순응부담, 국세청에 대한 신뢰 등 6가지 국세행정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함

- 이처럼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변수를 생성한 이유는 경제학의 기대효용 관점에서 탈세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처음으로 수행한 Allingham and Sandmo(1972) 및 백웅기 외(2016)에 기인함
- Allingham and Sandmo(1972):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행위가 적발되어 탈루 소득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 위험회피적인 개인은 자신의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해 최적 탈세 규모를 선택한다는 이론모형을 제시함
 - 동 모형은 세무조사 비율이 높을수록 또는 처벌 강도가 셀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냄
 - 백웅기 외(2016): 1,0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대한 신뢰 변수가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여도 납세순응행위 및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을 통해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변수들을 생성하였음

- 문13. 귀하는 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다 ③ 대체로 높다 ④ 매우 높다
- 문14. 귀하가 사업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것이 과세관청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할 때,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② 대체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③ 적당한 수준일 것이다 ④ 대체로 높은 수준일 것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다
- 문15. 최근 과세관청이 과거에 비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문16.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약간 적다 ③ 적당하다 ④ 약간 많다 ⑤ 매우 많다
- 문17. 귀하는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인 국세청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신뢰한다 ⑤ 전적으로 신뢰한다

III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1. 조사설계 및 표본구성

□ 조사대상 및 기간

- 대상자: 전국 16개 시도 내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 조사기간: 2015년 11월 23일 ~ 12월 16일

□ 조사내용

〈표 III-1〉 조사 내용

구분	내 용
인구통계 등 특성 질문	- 거주지역, 성별, 연령, 고용형태,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연평균 소득수준 - 1년간 복권 구입 유무, 이념적 성향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 조세 이해도/경험 - 납세순응도/납세윤리 -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 조세행정 및 처벌에 대한 인식 - 가상적 납세순응행위

출처: 저자 작성

□ 조사 진행방법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 응답자 편의에 따라 e-mail과 fax 조사를 병행함
- 각 지역별 추출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연령별, 성별, 고용형태별 목표 표본규모가 달성될 때까지 전화조사를 진행함
 - 단,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 시도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5회까지 실시함. 전화 시도마다 성공 및 실패 이유를 아래의 진행기록표에 적어 응답률 및 무응답 사유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전화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하였으며, 주말을 조사 기간 중에 포함하여, 경제활동참여자의 설문응답률을 높이하고자 함

〈표 Ⅲ-2〉 진행 기록표(예시)

순번	지역	국번	전화번호	전화시도1	전화시도2	전화시도3	전화시도4
d1	강릉(033)	641	2620				
d2	강릉(033)	643	7339				
d3	강릉(033)	642	4114				
d4	강릉(033)	662	9660				

출처: 저자 작성

□ 조사 설계

- 표본규모: 총 2,000명
- 표본추출방법 :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Random Digit Dialing)
 - － 고용형태(임금근로자, 사업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표본 할당 후, 각 cell로 할당된 표본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문을 진행함

□ 표본 추출

- 국내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 － 모집단 (성×연령×고용형태)

〈표 III-3〉 모집단 분포(성×연령×고용형태)

(단위: 명)

성별	연령별	만25~64세 인구	임금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전체		28,285,287	13,701,286	4,760,087	1,209,671	8,614,243
남자	소계	14,151,262	8,123,253	3,289,883	237,929	2,500,197
	25~29세	1,802,805	1,094,988	97,497	29,037	581,283
	30~39세	3,926,630	2,782,679	577,951	56,821	509,179
	40~49세	4,116,072	2,412,430	1,162,243	66,743	474,656
	50~59세	3,248,720	1,520,456	1,122,204	61,579	544,481
	60~64세	1,057,035	312,700	329,988	23,749	390,598
여자	소계	14,134,025	5,578,033	1,470,204	971,742	6,114,046
	25~29세	1,736,144	1,078,285	83,340	25,995	548,524
	30~39세	3,867,865	1,710,182	331,037	126,982	1,699,664
	40~49세	4,088,709	1,662,960	567,001	312,155	1,546,593
	50~59세	3,316,106	949,983	398,277	377,940	1,589,906
	60~64세	1,125,201	176,623	90,549	128,670	729,359

출처: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표 III-4〉 모집단 분포 비율

(단위: %)

성별	연령별	만25~64세 인구	임금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전체		100.0	48.6	16.8	4.2	30.4
남자	소계	50.0	28.8	11.6	0.8	8.8
	25~29세	6.4	3.9	0.3	0.1	2.1
	30~39세	13.9	9.8	2.0	0.2	1.8
	40~49세	14.6	8.5	4.1	0.2	1.7
	50~59세	11.5	5.4	4.0	0.2	1.9
	60~64세	3.7	1.1	1.2	0.1	1.4
여자	소계	50.0	19.8	5.2	3.4	21.6
	25~29세	6.1	3.8	0.3	0.1	1.9
	30~39세	13.7	6.0	1.2	0.4	6.0
	40~49세	14.5	5.9	2.0	1.1	5.5
	50~59세	11.7	3.4	1.4	1.3	5.6
	60~64세	4.0	0.6	0.3	0.5	2.6

출처: 저자 작성

○ 만 25~64세 표본 분포

- 16개 시도별,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모집단 규모에 비례 배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모집단 특성에 의하면 미취업자는 약 607명, 취업자는 1,393명을 할당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경제활동참여자) 표본이 납세의식조사에 더 참여하는 것이 좀 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미취업자는 600명 대신에 200명으로 축소 설계하고, 축소된 양만큼을 취업자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함

〈표 Ⅲ-5〉 표본 분포

(단위: 명)

성별	연령별	만25~64세 인구	임금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남자	전체	2,000	1,252	434	111	203
	소계	1,122	743	299	21	59
	25~29세	127	101	9	3	14
	30~39세	323	254	52	5	12
	40~49세	344	222	106	5	11
	50~59세	258	138	102	5	13
	60~64세	70	28	30	3	9
여자	소계	878	509	135	90	144
	25~29세	122	98	8	3	13
	30~39세	238	155	31	12	40
	40~49세	268	151	52	28	37
	50~59세	196	88	36	35	37
	60~64세	54	17	8	12	17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6〉 표본 분포 비율

(단위 : %)

성별	연령별	만25~64세 인구	임금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전체		100.0	62.7	21.8	5.6	10.2
남자	소계	56.1	37.2	15.0	1.1	3.0
	25~29세	6.4	5.1	0.5	0.2	0.7
	30~39세	16.2	12.7	2.6	0.3	0.6
	40~49세	17.2	11.1	5.3	0.3	0.6
	50~59세	12.9	6.9	5.1	0.3	0.7
	60~64세	3.5	1.4	1.5	0.2	0.5
여자	소계	43.9	25.5	6.8	4.5	7.2
	25~29세	6.1	4.9	0.4	0.2	0.7
	30~39세	11.9	7.8	1.6	0.6	2.0
	40~49세	13.4	7.6	2.6	1.4	1.9
	50~59세	9.8	4.4	1.8	1.8	1.9
	60~64세	2.7	0.9	0.4	0.6	0.9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지역별 분포는 고용형태별 표본 분포에서 확정된 성별 표본 수를 토대로 지역별로 비례 할당함

〈표 Ⅲ-7〉 모집단 및 표본 분포(지역별)

(단위: 명)

지역별	모집단 수			표본 수		
	만25~64세 인구	남자	여자	만25~64 세 인구	남자	여자
전체	28,285,287	14,151,262	14,134,025	2,000	1,122	878
서울	6,027,960	2,950,999	3,076,961	425	234	191
부산	2,063,354	1,006,144	1,057,210	145	80	66
대구	1,443,354	705,303	738,051	102	56	46
인천	1,590,792	801,218	789,574	113	64	49
광주	839,134	414,396	424,738	59	33	26
대전	866,827	432,561	434,266	61	34	27
울산	659,731	337,220	322,511	47	27	20
경기	6,664,243	3,358,810	3,305,433	472	266	205
강원	812,402	414,062	398,340	58	33	25
충북	833,975	425,080	408,895	59	34	25
충남	1,086,666	567,643	519,023	77	45	32
전북	952,174	477,353	474,821	67	38	29
전남	909,724	463,268	446,456	64	37	28
경북	1,431,108	728,051	703,057	101	58	44
경남	1,810,979	921,497	889,482	128	73	55
제주	292,864	147,657	145,207	21	12	9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응답현황

○ 성별 × 연령별 × 고용형태별 응답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III-8〉 회수 현황

(단위: 명)

성별	연령별	만25~64세 인구	임금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전체		2,299	1,444	472	115	268
남자	소계	1,262	831	330	38	63
	25~29세	146	114	8	6	18
	30~39세	347	277	56	3	11
	40~49세	372	240	114	6	12
	50~59세	301	159	115	13	14
	60~64세	96	41	37	10	8
여자	소계	1,037	613	142	77	205
	25~29세	146	120	8	3	15
	30~39세	266	182	27	10	47
	40~49세	311	187	58	23	43
	50~59세	243	106	41	30	66
	60~64세	71	18	8	11	34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지역별 × 성별 응답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Ⅲ-9〉 지역별 회수 현황

(단위: 명)

성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만25~64세 인구	2,299	468	164	118	127	68	75	56	6
남자	1,262	247	93	66	70	38	42	31	3
여자	1,037	221	71	52	57	30	33	25	3
성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만25~64세 인구	528	65	71	100	86	83	121	138	25
남자	285	35	41	54	47	49	69	79	13
여자	243	30	30	46	39	34	52	59	12

주: 1. 목표 2,000명 외에 299명이 over sampling 조사됨

2. 표본오차 : 신뢰수준 95%하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04%임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10〉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28,285,287	100.0
성별	남성	14,151,262	50.0
	여성	14,134,025	50.0
연령	25~29세	3,538,949	12.5
	30~39세	7,794,495	27.6
	40~49세	8,204,781	29.0
	50~59세	6,564,826	23.2
	60~64세	2,182,236	7.7
거주 지역	수도권	13,983,541	49.4
	기타 광역시	5,851,263	20.7
	그 외 지역	8,450,482	29.9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3,701,286	48.4
	사업주/자영업자	4,760,087	16.8
	전업주부	4,437,095	15.7
	미취업자	4,177,148	14.8
	무급가족종사자	1,209,671	4.3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6,172,042	21.8
	1천만원~5천만원 미만	15,918,761	56.3
	5천만원~9천만원 미만	5,349,623	18.9
	9천만원 이상	844,862	3.0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가중치 산정 방법

- 가중치는 성별/연령/근로형태별 각 cell별로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배분한 크기와 실제 조사된 cell별 표본 수를 이용하여 모집단 분포에 따르도록 가중 조정함

- 가중치 W_{ijk} 는 다음과 같음

$$W_{ijk} = \frac{N_{ijk}}{n_{ijk}}, \quad N_{ijk}; \text{모집단 분포에 따른 } ijk \text{ cell의 표본크기,}$$

$$n_{ijk}; \text{실제 조사된 cell 별 표본 크기}$$

$$i = 1 (\text{성별})$$

$$j = 1, 2, 3, 4 (\text{연령별 특성})$$

$$k = 1, 2, 3, 4 (\text{근로형태})$$

2. 기술통계량

가.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포함)이 49.4%, 나머지 지역이 50.6%의 분포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경기 지역 다음으로는 서울(20.1%), 부산(7.5%), 경남(5.8%), 인천(5.6%), 경북(5.1%), 대구(4.7%), 충남(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이 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50%의 비율로 거의 동일하게 구성됐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0대(27.6%), 50대(23.2%), 20대(12.5%), 60대(7.7%) 순으로 나타남
 - 설문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43세였음
- 혼인 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65.7%,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4.3%임
 - 응답자들 중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64%,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67.4%로 남녀 모두 비슷하게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들의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대체로 높아졌으며, 이 중 소득수준 5천만~9천만원 미만인 그룹이 87.6%(배우자 있음)로 가장 높았음
- 교육수준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자가 6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24.4%), 대학원졸 이상(8.9%), 중졸 이하(1.9%) 순이었음

-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졸(전문대졸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11〉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있음	없음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졸 이상
전체		2,299	65.7	34.3	1.9	24.4	64.9	8.9
성별	남성	1,262	64.0	36.0	1.6	17.2	69.2	12.1
	여성	1,037	67.4	32.6	2.2	31.6	60.5	5.6
연령	20대(25~29세)	292	7.4	92.6	0.9	12.4	76.3	10.4
	30대(30~39세)	613	55.3	44.7	0.1	17.3	74.1	8.5
	40대(40~49세)	683	77.2	22.8	0.5	19.6	69.0	10.9
	50대(50~59세)	544	88.1	11.9	3.2	38.7	51.3	6.8
	60대(60~64세)	167	86.4	13.6	11.1	44.3	38.5	6.1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67.3	32.7	2.1	25.0	63.8	9.1
	기타 광역시	695	62.0	38.0	2.7	21.7	65.6	10.0
	그 외 지역	481	65.6	34.4	1.0	25.3	66.1	7.7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1,444	62.2	37.8	1.3	15.3	71.9	11.4
	사업주/자영업자	472	75.2	24.8	2.0	21.6	67.0	9.4
	전업주부	154	93.6	6.4	3.3	40.7	51.9	4.1
	미취업자	114	34.0	66.0	1.7	32.0	60.1	6.1
	무급가족종사자	115	74.3	25.7	3.6	51.6	39.9	4.9
연평균 소득 수준	1천만원 미만	283	45.5	54.5	3.6	37.9	54.5	4.0
	1~5천만원 미만	1465	65.3	34.7	1.9	23.3	67.1	7.7
	5~9천만원 미만	468	87.6	12.4	0.0	13.9	69.9	16.2
	9천만원 이상	83	81.7	18.3	1.1	12.0	65.9	21.0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응답자들의 급여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연금수령액 등을 모두 합한

연평균 소득수준은 1천만~5천만원 미만인 56.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천만원 미만(21.8%), 5천만~9천만원 미만(18.9%), 9천만원 이상(3%) 순으로 조사됨

- 성별은 5천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남성은 75.9%, 여성은 80.2%였으며, 1천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남성이 16.2%, 여성이 27.4%, 반대로 9천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남성이 3.9%, 여성이 2%로 소득분포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20~60대)에서 1천만~5천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각 소득수준에 대한 연령대별 분포 비율만을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대가 36.5%, 1천만~5천만원 미만은 30대가 62.4%, 5천만~9천만원 미만은 40대가 31.6%, 9천만원 이상은 50대가 4%로 각각 가장 높았음
- 거주지역별 소득수준을 살펴봤을 때 수도권 및 기타 지역 모두 1천만~5천만원 미만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남
 - 1천만~5천만원 미만의 연평균 소득수준을 가지는 응답자들이 수도권은 53.1%, 기타 광역시는 57.4%, 그 외 지역은 60.8%로 조사됨
-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1천만~5천만원 미만이 71.9%로 가장 많았고, 5천만~9천만원(21.8%), 1천만원 미만(3.9%), 9천만원 이상(2.4%) 순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9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율이 8.7%로 임금근로자(2.4%)보다 높았으나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자도 8.6%로 임금근로자(3.9%)보다 높게 조사됨
 - 전업주부는 1천만~5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응답자가 3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천만원 미만(36.9%), 5천만~9천만원 미만(22.8%), 8천만원 이상(0.8%)로 나타나 전업주부이지만 소득을 버는 응답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 무급가족 종사자도 전업주부와 비슷한 분포 추이를 보여, 1천만~5천

만원 미만(38.9%), 1천만원 미만(36.1%), 5천만~9천만원 미만(19.5%), 9천만원 이상(5.4%) 순이었음

- 미취업자 중 1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응답자는 75.6%에 달했으며, 1천만~5천만원 미만이 21.7%, 5천만~9천만원 미만 2.7%, 9천만원 이상은 0%로 조사됨

〈표 III-12〉 연평균 소득 수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5~9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
전체		2,299	21.8	56.3	18.9	3.0
성별	남성	1,262	16.2	59.7	20.1	3.9
	여성	1,037	27.4	52.8	17.7	2.0
연령	20대(25~29세)	292	36.5	58.2	3.8	1.4
	30대(30~39세)	613	21.6	62.4	14.0	2.0
	40대(40~49세)	683	13.2	51.5	31.6	3.8
	50대(50~59세)	544	23.1	53.3	19.6	4.0
	60대(60~64세)	167	27.1	58.5	11.4	3.0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23.2	53.1	20.4	3.2
	기타 광역시	695	20.6	57.4	18.8	3.3
	그 외 지역	481	20.3	60.8	16.5	2.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3.9	71.9	21.8	2.4
	사업주/자영업자	472	8.6	61.6	21.1	8.7
	전업주부	154	36.9	39.5	22.8	0.8
	미취업자	114	75.6	21.7	2.7	0.0
	무급가족종사자	115	36.1	38.9	19.5	5.4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납세의식 관련 변수

1) 성실납세의향 지표

□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적극적 성실납세의향을,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는 소극적 성실납세의향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와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성실납세의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함²⁾
- 성실납세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52.9%, 적극적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40.6%, 소극적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6.4%로 성실납세의향이 없음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
 - － 성실납세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 중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42.7%로 높고, 납세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 정도임
- 응답자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60대에서 적극적 납세의향이 62.3%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고, 실제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와 40대에서 적극적 납세의향과 소극적 납세의향 모두 낮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적극적 납세성향이 60.5%로 가장 높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와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그룹의 성실납세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소득별로 세법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가 높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그룹의 성실납세의향이 가장 낮았고, 9천만원 이상 고소득 그룹에서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를 선택한 비율이 17.4%로 다른 그룹보다 높았음

2) 이혜원(2012)의 해석에 따름

〈표 III-13〉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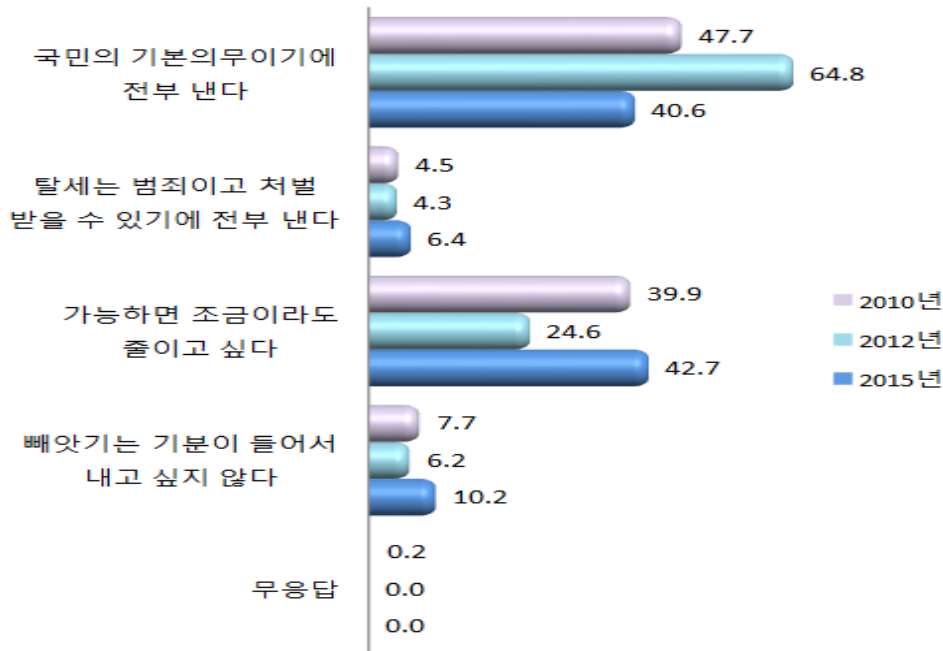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국민의 기본의무이 므로 전부 낸다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전체		2,299	40.6	6.4	42.7	10.2
성별	남성	1,262	39.8	7.4	43.5	9.3
	여성	1,037	41.4	5.5	41.9	11.1
연령	20대(25~29세)	292	36.8	10.2	37.9	15.0
	30대(30~39세)	613	33.5	8.8	47.4	10.3
	40대(40~49세)	683	36.9	5.2	47.4	10.5
	50대(50~59세)	544	48.5	4.8	37.3	9.4
	60대(60~64세)	167	62.3	1.3	32.8	3.5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40.2	5.6	43.8	10.3
	기타 광역시	695	39.7	6.5	44.7	9.1
	그 외 지역	481	41.9	7.7	39.5	10.8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38.6	6.7	44.8	9.9
	사업주/자영업자	472	34.8	5.1	50.0	10.1
	전업주부	154	45.1	4.0	39.6	11.3
	미취업자	114	43.5	10.3	34.8	11.4
	무급가족종사자	115	60.5	4.3	29.2	6.0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42.8	8.5	36.5	12.2
	1~5천만원 미만	1465	39.7	5.6	44.2	10.5
	5~9천만원 미만	468	41.0	6.6	46.4	6.0
	9천만원 이상	83	40.3	5.6	36.7	17.4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Ⅲ-1]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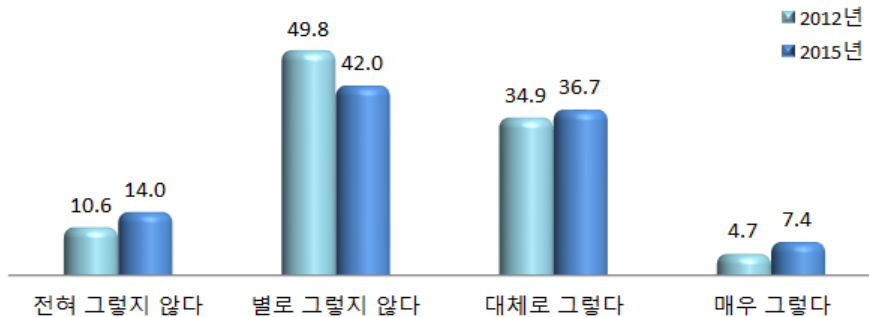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세금납부회피 위험)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세금납부회피 위험 성향(대체로 그렇다 36.7%, 매우 그렇다 7.4%)을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44.0%, 세금납부회피 위험 성향이 낮은(전혀 그렇지 않다 14%, 별로 그렇지 않다 42%) 응답자는 56%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낮은 세금납부회피 위험 성향을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세금회피 위험성향을 선택한 비율이 10.8%p 높아 남성의 세금납부회피 위험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과 비례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답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납부회피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 적발 가능성이 없을 시, 세금을 회피할 의향 여부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14〉 적발 가능성이 없을 시, 세금을 회피할 의향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99	14.0	42.0	36.7	7.4
성별	남성	1,262	11.7	38.9	40.1	9.3
	여성	1,037	16.3	45.1	33.2	5.4
연령	20대(25~29세)	292	11.7	47.3	29.2	11.8
	30대(30~39세)	613	9.0	46.8	34.6	9.6
	40대(40~49세)	683	9.9	39.6	43.6	6.8
	50대(50~59세)	544	20.0	39.3	36.0	4.7
	60대(60~64세)	167	32.9	33.1	31.8	2.2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15.5	40.2	36.5	7.8
	기타 광역시	695	11.3	42.4	40.5	5.8
	그 외 지역	481	13.3	44.7	34.3	7.7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10.9	41.8	39.0	8.3
	사업주/자영업자	472	12.7	38.7	41.2	7.4
	전업주부	154	17.3	46.3	31.1	5.4
	미취업자	114	13.6	44.0	35.4	7.0
	무급가족종사자	115	43.7	34.0	17.1	5.2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16.5	48.1	28.1	7.3
	1~5천만원 미만	1465	12.9	41.8	38.2	7.0
	5~9천만원 미만	468	13.8	37.3	40.8	8.1
	9천만원 이상	83	17.0	30.1	43.9	9.0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납세순응행위 지표

- (가상 납세순응행위 1)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는 현금매출액 1천만원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묻는 응답 결과
-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인 42.5%는 신고한다고 응답함
 - 지난 2010년에는 신고한다는 의견이 41.8%였으며, 2012년에는 49.1%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5년 들어 조사한 결과는 다시 42.5%로 낮아짐
 - 신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42.9%, 여성은 4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4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47.9%), 40대(42.9%), 30대(40.2%), 50대(39.7%) 순이었음
 - 거주지역별로는 신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39.5%로 가장 낮았고, 수도권(41.2%), 기타 지역(46.7%)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자영업자(44.5%)나 임금근로자(40.5%)는 전체 평균과 비슷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58.7%)의 신고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평균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신고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44.7%였으나, 9천만원 이상을 버는 응답자는 전체 평균보다 6.4%p 낮은 36.1%의 비율로 답함

〈표 III-15〉 가상 납세순응행위 I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전체		2,299	42.5	57.5
성별	남성	1,262	42.9	57.1
	여성	1,037	42.0	58.0
연령	20대(25~29세)	292	47.9	52.1
	30대(30~39세)	613	40.2	59.8
	40대(40~49세)	683	42.9	57.1
	50대(50~59세)	544	39.7	60.3
	60대(60~64세)	167	48.8	51.2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41.2	58.8
	기타 광역시	695	39.5	60.5
	그 외 지역	481	46.7	53.3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40.5	59.5
	사업주/자영업자	472	44.5	55.5
	전업주부	154	36.3	63.7
	미취업자	114	48.4	51.6
	무급가족종사자	115	58.7	41.3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44.7	55.3
	1~5천만원 미만	1465	42.1	57.9
	5~9천만원 미만	468	42.3	57.7
	9천만원 이상	83	36.1	63.9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II-3] 가상 납세순응행위 I

(단위: 명, %)



자료: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가상 납세순응행위 2)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는 제안에 대한 응답 결과

○ 응답자는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21.5%만이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가

므로 응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78.5%는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답함

– 2010년 조사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의견이 77.1%, 2012년에는 78.5%로 지난 5년 동안 현금결제를 통한 세금회피 행위에는 응답자들이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7%와 78.4%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도 거의 비슷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60대는 전체 평균보다 7.4%p 낮은 71.1%가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응답함
- 현금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인천 제외)가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임금근로자가 81.1%로 가장 높았음
- 소득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체평균과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임
 - 1천만~5천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의견에 79.8%로 답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Ⅲ-4] 가상 납세순응행위 II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16〉 가상 납세순응행위 II

(단위: 명, %)

구분		응답 자 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이므로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
전체		2,299	78.5	21.5
성별	남성	1,262	78.7	21.3
	여성	1,037	78.4	21.6
연령	20대(25~29세)	292	79.0	21.0
	30대(30~39세)	613	83.0	17.0
	40대(40~49세)	683	77.3	22.7
	50대(50~59세)	544	76.9	23.1
	60대(60~64세)	167	71.1	28.9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77.3	22.7
	기타 광역시	695	82.9	17.1
	그 외 지역	481	77.5	22.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81.1	18.9
	사업주/자영업자	472	77.1	22.9
	전업주부	154	75.7	24.3
	미취업자	114	76.5	23.5
	무급가족종사자	115	72.2	27.8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75.7	24.3
	1~5천만원 미만	1465	79.8	20.2
	5~9천만원 미만	468	78.5	21.5
	9천만원 이상	83	75.6	24.4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기타 변수

1) 조세형평도 지표

□ (수직적 형평성)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적으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14.6%, 매우 그렇다 3.2%)를 선택해 수직적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 나타나 82.1%의 응답자는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수직적 형평성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소득이 9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그룹의 73.3%는 수직적 형평

성에 부정적으로 반응함

〈표 Ⅲ-17〉 수직적 형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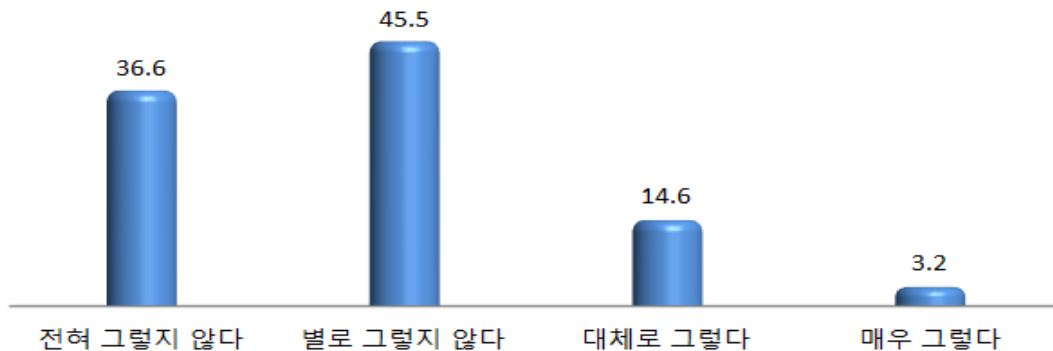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99	36.6	45.5	14.6	3.2
성별	남성	1,262	37.4	42.2	17.1	3.3
	여성	1,037	35.9	48.9	12.2	3.1
연령	20대(25~29세)	292	42.1	45.2	9.2	3.5
	30대(30~39세)	613	40.0	45.3	11.9	2.8
	40대(40~49세)	683	36.6	44.9	14.2	4.3
	50대(50~59세)	544	31.3	48.0	18.1	2.6
	60대(60~64세)	167	31.9	42.0	24.1	2.1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39.1	43.1	14.5	3.2
	기타 광역시	695	36.5	47.6	12.5	3.4
	그 외 지역	481	32.6	48.1	16.2	3.2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40.0	42.9	13.6	3.5
	사업주/자영업자	472	35.8	42.2	19.0	3.0
	전업주부	154	34.9	49.9	12.1	3.1
	미취업자	114	33.2	52.3	12.5	2.1
	무급가족종사자	115	20.3	49.2	25.2	5.3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35.2	48.7	13.4	2.7
	1~5천만원 미만	1465	37.8	45.1	14.2	3.0
	5~9천만원 미만	468	34.6	44.8	16.2	4.3
	9천만원 이상	83	37.9	35.5	21.6	5.1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II-5] 수직적 형평성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수평적 형평성)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본인의 세금 부담 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응답 결과

○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수직적 형평성과 비교할 때 수평적 형평성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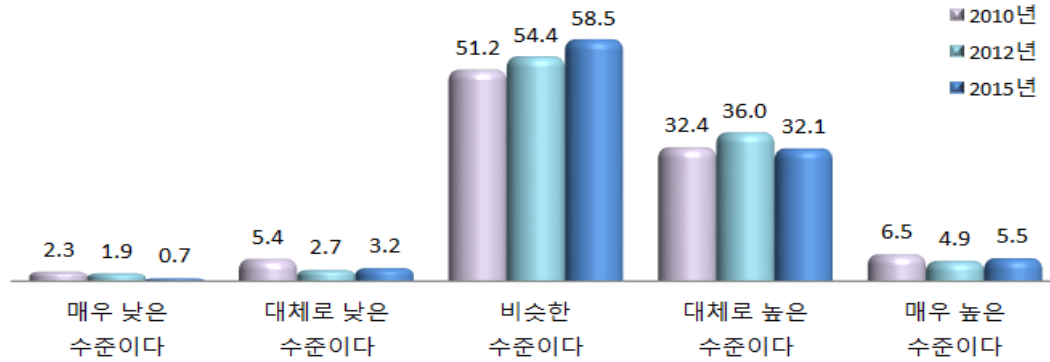
○ 본인의 세금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6%, 세금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9천만원 이상인 고소득 그룹에서는 적정한 수준을 선택한 비율(38%)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52.7%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고용형태별로는 전업주부 그룹에서,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그룹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인식함

[그림 Ⅲ-6] 수평적 형평성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18〉 수평적 형평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체		2,299	0.7	3.2	58.5	32.1	5.5
성별	남성	1,262	0.5	3.5	59.1	31.3	5.7
	여성	1,037	0.8	2.8	58.0	32.9	5.4
연령	20대(25~29세)	292	1.0	2.0	65.1	22.7	9.1
	30대(30~39세)	613	0.3	2.1	58.3	35.1	4.2
	40대(40~49세)	683	0.1	2.1	56.2	36.7	4.8
	50대(50~59세)	544	1.8	6.0	55.7	30.3	6.2
	60대(60~64세)	167	0.0	3.8	65.8	25.0	5.4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0.6	4.3	57.5	32.2	5.3
	기타 광역시	695	0.2	0.8	58.4	34.5	6.1
	그 외 지역	481	1.1	3.0	60.2	30.2	5.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0.3	2.9	58.1	32.9	5.8
	사업주/자영업자	472	0.8	3.5	57.8	32.3	5.5
	전업주부	154	0.5	3.7	50.4	41.7	3.7
	미취업자	114	0.9	1.9	68.5	21.1	7.7
	무급가족종사자	115	4.1	6.8	61.3	25.8	2.1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1.2	3.8	63.9	26.0	5.1
	1~5천만원 미만	1465	0.6	3.0	60.7	30.8	4.9
	5~9천만원 미만	468	0.0	2.2	49.1	42.3	6.4
	9천만원 이상	83	2.8	6.5	38.0	37.3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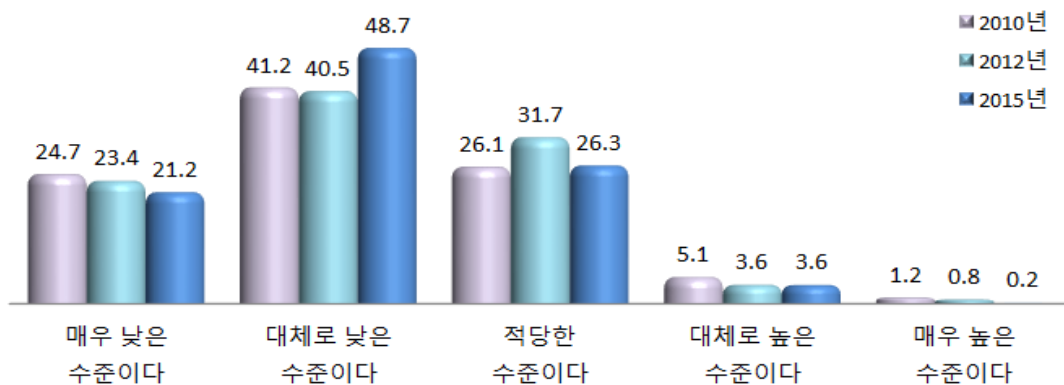
자료: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교환의 형평성)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한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응답 결과

-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48.7%로 가장 높고, 적절한 수준이다가 26.3%, 매우 낮은 수준이다가 21.2%,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가 3.6%, 매우 높은 수준이다가 0.2%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이 낮다고 인식함
- 연령별로는 30대 그룹이 다른 연령과 비교해 정부로부터의 혜택이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이다 26.3%,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49.5%)이라고 인식함
-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정부로부터의 혜택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미만 그룹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의 혜택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그림 III-7] 교환의 형평성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19〉 교환의 형평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체		2,299	21.2	48.7	26.3	3.6	0.2
성별	남성	1,262	20.8	48.3	27.0	3.8	0.1
	여성	1,037	21.7	49.1	25.6	3.3	0.2
연령	20대(25~29세)	292	28.3	44.4	25.3	2.0	0.0
	30대(30~39세)	613	26.3	49.5	22.2	2.0	0.0
	40대(40~49세)	683	19.7	50.5	26.1	3.4	0.4
	50대(50~59세)	544	16.5	46.2	31.5	5.6	0.2
	60대(60~64세)	167	11.8	53.8	28.3	6.1	0.0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22.5	48.8	25.5	2.9	0.2
	기타 광역시	695	21.5	49.3	27.1	2.1	0.0
	그 외 지역	481	18.9	48.2	27.1	5.6	0.2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22.0	49.6	25.7	2.6	0.1
	사업주/자영업자	472	21.9	46.3	27.2	4.6	0.0
	전업주부	154	20.4	53.0	23.6	2.9	0.0
	미취업자	114	19.9	46.0	28.2	5.9	0.0
	무급가족종사자	115	17.3	41.3	34.1	5.0	2.2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22.0	48.5	26.6	2.9	0.0
	1~5천만원 미만	1465	21.4	47.9	27.3	3.3	0.1
	5~9천만원 미만	468	19.2	52.0	23.8	4.6	0.5
	9천만원 이상	83	26.8	44.6	22.6	6.1	0.0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조세이해도 지표

□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 세금에 대해 모른다는 부정적 답변(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56.8%, 전혀 모르고 있다 1.7%)이 58.5%로 나타나 세금에 대해 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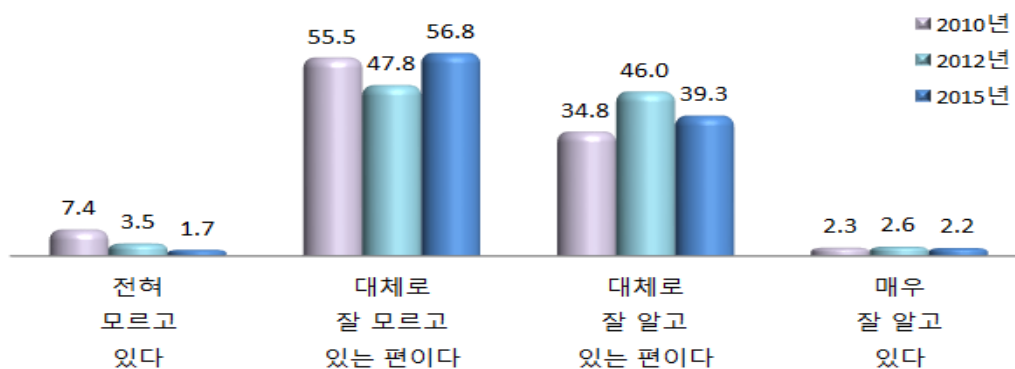
다는 긍정적 답변(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9.3%, 매우 잘 알고 있다 2.2%)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를 선택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가 39.3%,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2%, “전혀 모르고 있다”가 1.7%로 조사됨

- 유형별 분석 결과 50대, 사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9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그룹은 세금에 대해 잘 안다는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60대를 제외하면 높은 연령에서, 전업주부나 미취업자보다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서,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 세금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 지역별로는 긍정적인 답변(그 외 지역(42.2%)>기타 광역시(42%)>수도권(40.8%))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함

[그림 III-8] 세금 인지 정도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20〉 세금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전혀 모르고 있다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2,299	1.7	56.8	39.3	2.2
성별	남성	1,262	1.8	51.8	43.4	3.1
	여성	1,037	1.6	61.8	35.2	1.4
연령	20대(25~29세)	292	0.5	62.1	36.3	1.1
	30대(30~39세)	613	3.0	63.2	33.2	0.6
	40대(40~49세)	683	0.8	58.4	39.1	1.7
	50대(50~59세)	544	1.7	47.3	45.9	5.1
	60대(60~64세)	167	2.5	47.9	46.7	2.9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2.3	56.9	38.9	1.9
	기타 광역시	695	0.8	57.2	40.5	1.5
	그 외 지역	481	1.5	56.3	39.0	3.1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0.9	56.7	39.9	2.5
	사업주/자영업자	472	0.6	47.3	48.2	3.9
	전업주부	154	2.6	65.4	31.5	0.5
	미취업자	114	4.6	61.3	33.2	0.9
	무급가족종사자	115	2.0	47.8	47.0	3.1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4.3	63.0	31.3	1.3
	1~5천만원 미만	1465	1.1	56.8	40.0	2.1
	5~9천만원 미만	468	0.8	52.8	43.3	3.1
	9천만원 이상	83	1.2	36.5	57.6	4.7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의 83.8%가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남
 - “모른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9.7%, “15%”를 선택한 응답자가 2.3%, “5%”를 선택한 응답자가 2.2%, “20%”를 선택한 응답자가 1.9%임

- 부가가치세율을 올바르게 인지한 비율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그 외 지역, 고용형태별로는 사업자, 소득구간별로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그룹에서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남
 - 세금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높은 그룹에서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정답률도 높은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이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정답률은 소득과 비례해 증가하지 않음

〈표 III-21〉 부가가치세율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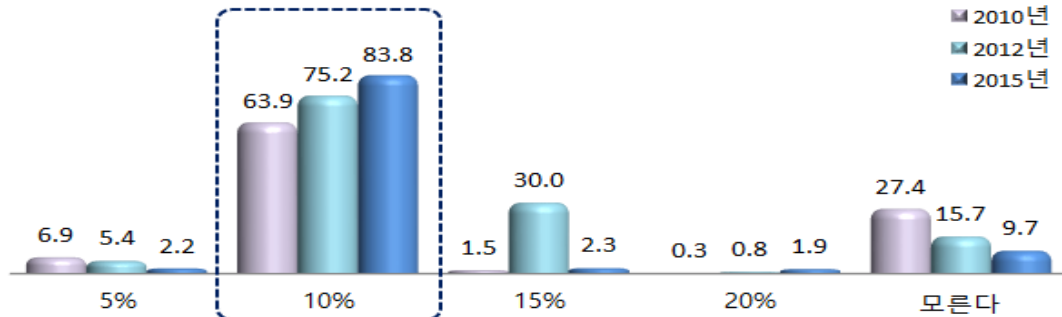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5%	10% (정답)	15%	20%	모른다
전체		2,299	2.2	83.8	2.3	1.9	9.7
성별	남성	1,262	1.3	88.2	3.0	1.7	5.8
	여성	1,037	3.1	79.4	1.7	2.2	13.5
연령	20대(25~29세)	292	1.6	81.7	4.1	2.6	10.1
	30대(30~39세)	613	2.1	84.5	2.3	2.0	9.0
	40대(40~49세)	683	1.9	85.6	2.2	2.5	7.7
	50대(50~59세)	544	3.6	83.6	2.0	1.1	9.6
	60대(60~64세)	167	0.6	78.5	1.0	1.1	18.8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2.3	83.0	2.7	2.0	10.0
	기타 광역시	695	2.5	83.4	1.9	1.6	10.6
	그 외 지역	481	1.8	85.4	2.1	2.1	8.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1.5	86.4	3.0	1.9	7.3
	사업주/자영업자	472	1.2	90.8	2.2	2.2	3.6
	전업주부	154	4.3	76.8	1.6	2.6	14.7
	미취업자	114	3.4	76.4	1.7	0.9	17.6
	무급가족종사자	115	2.7	78.6	1.1	2.9	14.7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3.5	73.8	1.8	2.1	18.8
	1~5천만원 미만	1465	2.0	87.1	2.3	1.4	7.3
	5~9천만원 미만	468	1.9	86.0	2.3	3.6	6.3
	9천만원 이상	83	0.0	81.2	8.4	1.4	8.9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Ⅲ-9] 부가가치세율 인지 여부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2) 현금영수증 최저발급금액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의 50.6%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선택해 절반 정도만 현금영수증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남
 - “1천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24.2%, “5천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11.9%, “모른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0%, “1만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3.3%임
- 성별로는 남성에서,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지역별로는 도심지에서 가까울수록, 고용형태별로는 사업자보다는 근로소득자에서, 소득수준별로는 1천만원 미만인 그룹을 제외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정답률이 높았음
- 몇 개의 그룹을 제외하면 주관적 이해도에 대한 조사결과와 부가가치세의 정답률은 대체로 비례해 주관적 이해도가 높은 그룹의 부가가치세율 정답률이 높았던 반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주관적 이해도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컸음
 - 주관적 이해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높았으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정답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주관적 이해도는 도심지에서 멀수록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높았으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정답률은 도심지에서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남

- 주관적 이해도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높았으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응답률은 근로소득자 그룹에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에 있어서 주관적 이해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높았으나 객관적 인지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2〉 현금영수증의 최저발급 금액의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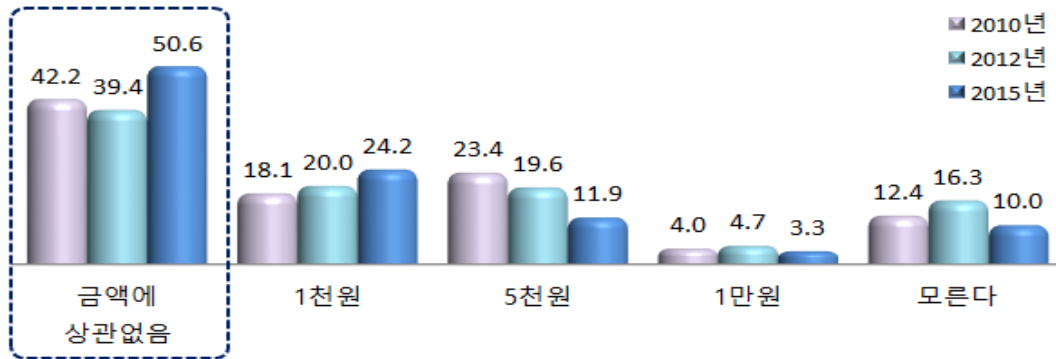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5%	10% (정답)	15%	20%	모른다
전체		2,299	50.6	24.2	11.9	3.3	10.0
성별	남성	1,262	52.4	19.9	12.7	4.6	10.5
	여성	1,037	48.8	28.5	11.2	2.0	9.5
연령	20대(25~29세)	292	62.3	25.2	5.7	2.9	3.9
	30대(30~39세)	613	54.3	27.2	10.7	3.0	4.7
	40대(40~49세)	683	47.0	28.2	13.9	3.8	7.1
	50대(50~59세)	544	46.6	16.8	13.2	4.0	19.4
	60대(60~64세)	167	43.4	18.7	15.7	1.3	21.0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51.5	24.6	10.5	3.2	10.2
	기타 광역시	695	50.0	24.3	10.3	3.9	11.5
	그 외 지역	481	49.5	23.4	15.5	3.0	8.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54.0	24.4	11.8	3.1	6.7
	사업주/자영업자	472	49.9	18.8	11.6	5.8	13.9
	전업주부	154	44.8	30.7	12.8	2.2	9.6
	미취업자	114	44.8	27.3	11.2	2.9	13.8
	무급가족종사자	115	55.0	8.7	14.7	1.4	20.1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50.4	20.5	11.0	3.3	14.8
	1~5천만원 미만	1465	51.3	24.4	11.8	3.2	9.4
	5~9천만원 미만	468	49.5	27.6	13.4	3.2	6.3
	9천만원 이상	83	45.8	25.5	12.7	6.6	9.4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Ⅲ-10]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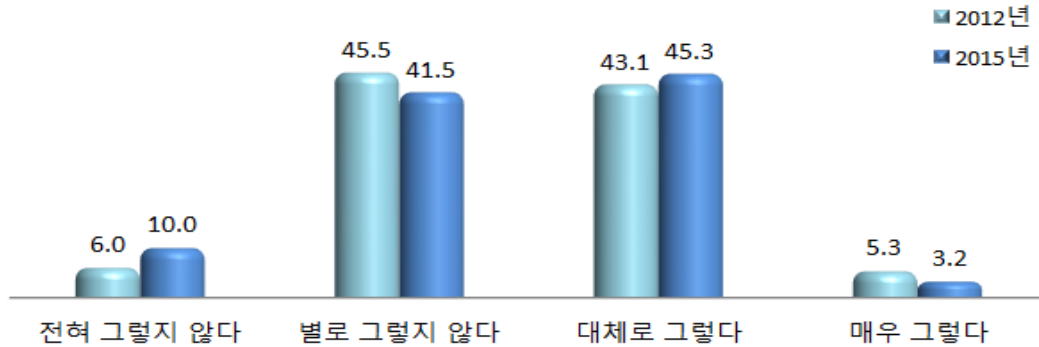
3) 사회적 규범 지표

□ (기술적 사회규범 1)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국민들의 성실납세 여부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41.5%)는 부정적 답변이 51.5%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45.3%, 매우 그렇다 3.2%)는 긍정적 답변보다 높게 나타남
 -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0%, 별로 그렇지 않다 41.5%, 대체로 그렇다 45.3%, 매우 그렇다 3.2%임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도권이나 그 외 지역보다는 기타 광역시에서, 근로소득자보다는 사업자에서, 9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납세의식이 높게 나타남
 - 고용형태별 특성에서 근로소득자, 사업자, 전업주부와 미취업자 모두 부정적 납세의식이 높았던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6.3%를 기록해 긍정적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납세의식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III-11]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23〉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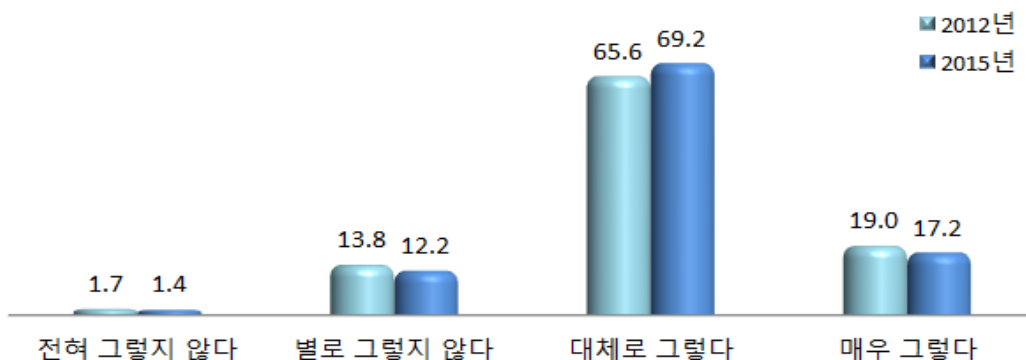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99	10.0	41.5	45.3	3.2
성별	남성	1,262	10.3	40.6	45.5	3.6
	여성	1,037	9.7	42.4	45.0	2.9
연령	20대(25~29세)	292	8.8	42.0	46.6	2.6
	30대(30~39세)	613	8.4	42.7	46.1	2.9
	40대(40~49세)	683	8.2	43.4	45.4	3.1
	50대(50~59세)	544	13.9	37.6	44.4	4.1
	60대(60~64세)	167	12.8	41.2	42.4	3.5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10.9	39.8	46.2	3.1
	기타 광역시	695	9.5	46.5	40.1	3.9
	그 외 지역	481	8.9	40.8	47.2	3.1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9.5	40.8	46.0	3.7
	사업주/자영업자	472	10.1	43.6	43.0	3.3
	전업주부	154	11.8	43.4	42.2	2.7
	미취업자	114	11.8	41.7	44.6	2.0
	무급가족종사자	115	3.0	33.3	59.4	4.2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7.9	44.7	43.8	3.7
	1~5천만원 미만	1,465	10.7	40.0	46.4	2.9
	5~9천만원 미만	468	10.6	41.7	44.5	3.3
	9천만원 이상	83	8.6	46.3	39.3	5.9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기술적 사회규범 2) 본인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86.4%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4%, 별로 그렇지 않다 12.2%, 대체로 그렇다 69.2%, 매우 그렇다 17.2%의 비율을 보여 대체로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20대(91.1%) > 30대(90.1%) > 40대(84.9%) > 50대(82.4%) > 60대(83.2%)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기타 광역시에서, 고용형태별로는 사업자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고소득자와 사업자 그룹에서 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른 그룹보다 높았던 점이 특징적임

[그림 Ⅲ-12] 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24〉 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99	1.4	12.2	69.2	17.2
성별	남성	1,262	1.5	13.8	68.3	16.3
	여성	1,037	1.4	10.6	70.0	18.1
연령	20대(25~29세)	292	0.8	8.1	67.1	24.0
	30대(30~39세)	613	0.5	9.4	70.8	19.2
	40대(40~49세)	683	1.5	13.6	69.4	15.5
	50대(50~59세)	544	2.4	15.2	67.2	15.3
	60대(60~64세)	167	2.7	14.2	71.6	11.6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0.9	12.4	68.8	18.0
	기타 광역시	695	1.8	12.9	68.0	17.3
	그 외 지역	481	2.1	11.4	70.6	15.9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1.2	10.9	67.9	20.0
	사업주/자영업자	472	2.7	18.8	68.8	9.7
	전업주부	154	1.6	10.3	69.8	18.3
	미취업자	114	0.9	12.0	71.3	15.8
	무급가족종사자	115	0.0	8.8	75.5	15.7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0.5	11.9	66.2	21.3
	1~5천만원 미만	1465	1.7	10.9	71.8	15.5
	5~9천만원 미만	468	1.2	14.0	67.5	17.3
	9천만원 이상	83	4.7	25.9	50.9	18.4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명령적 사회규범 1)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14.6%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불성실한 납세행위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2.5%, 별로 그렇지 않다 12.1%, 대체로 그렇다 57.3%, 매우 그렇다 28.1%의 비율을 보여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

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고용형태별로는 근로소득자 그룹에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다른 그룹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고소득자의 그룹은 다른 그룹과 비교해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그룹의 부정적 인식이 8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25〉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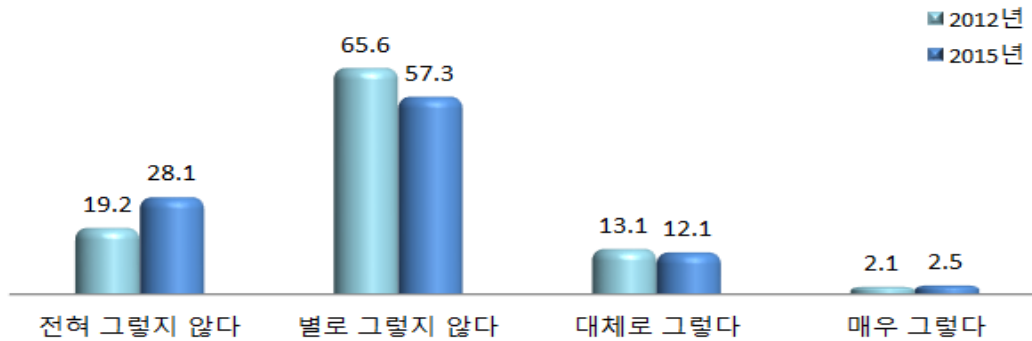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99	28.1	57.3	12.1	2.5
성별	남성	1,262	29.9	54.9	12.4	2.8
	여성	1,037	26.4	59.6	11.8	2.2
연령	20대(25~29세)	292	39.6	46.1	11.7	2.6
	30대(30~39세)	613	28.3	57.7	10.1	3.9
	40대(40~49세)	683	28.4	57.9	11.4	2.3
	50대(50~59세)	544	24.2	59.0	15.0	1.8
	60대(60~64세)	167	19.5	66.3	13.7	0.5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28.4	56.0	12.7	2.8
	기타 광역시	695	28.5	59.8	8.8	3.0
	그 외 지역	481	27.4	57.6	13.3	1.7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31.3	56.7	9.7	2.3
	사업주/자영업자	472	24.4	58.0	15.3	2.2
	전업주부	154	24.1	62.4	11.3	2.2
	미취업자	114	30.6	54.2	11.5	3.8
	무급가족종사자	115	13.4	52.7	31.4	2.6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26.2	55.9	14.1	3.8
	1~5천만원 미만	1465	28.6	58.5	10.9	2.0
	5~9천만원 미만	468	28.8	56.2	12.1	2.9
	9천만원 이상	83	28.8	50.4	19.7	1.1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III-13]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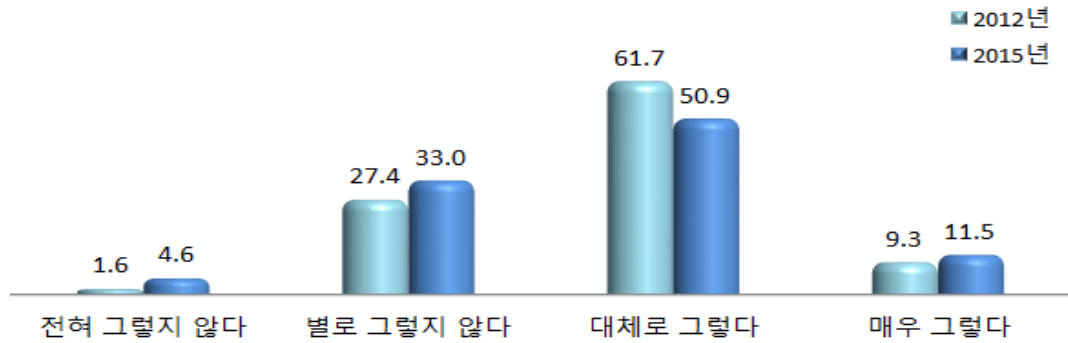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명령적 사회규범 2) 본인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것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

- 조사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62.4%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보다 높게 나타나, 절반 이상이 불성실한 납세행위를 하면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인식함
 - 전혀 그렇지 않다 4.6%, 별로 그렇지 않다 33%, 대체로 그렇다 50.9%, 매우 그렇다 11.5%로 조사됨
-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다른 지역보다는 수도권에서, 사업자보다는 근로소득자가, 1천만원 미만 저소득자 그룹에서 본인의 불성실한 납세행위가 부정적인 평가로 연결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불성실 납세행위가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다른 그룹과 비교해 9천만원 이상 고소득 그룹에서 불성실 납세행위가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다른 그룹보다 낮음

[그림 Ⅲ-14] 부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면 친구의 부정적인 인식 정도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26〉 부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면 친구의 부정적인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99	4.6	33.0	50.9	11.5
성별	남성	1,262	4.6	35.8	49.7	9.9
	여성	1,037	4.7	30.2	52.1	13.0
연령	20대(25~29세)	292	2.5	31.0	45.1	21.4
	30대(30~39세)	613	3.0	33.2	52.6	11.1
	40대(40~49세)	683	4.5	33.6	52.8	9.1
	50대(50~59세)	544	7.5	33.4	48.2	10.9
	60대(60~64세)	167	5.9	31.9	55.0	7.2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3.8	32.0	52.1	12.1
	기타 광역시	695	4.3	35.0	48.4	12.4
	그 외 지역	481	6.3	33.3	50.7	9.8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2.8	34.1	52.2	10.9
	사업주/자영업자	472	4.4	37.1	49.0	9.5
	전업주부	154	1.1	26.9	59.0	13.0
	미취업자	114	4.1	35.4	45.3	15.1
	무급가족종사자	115	40.7	18.8	32.8	7.6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4.4	30.2	48.7	16.8
	1~5천만원 미만	1465	4.1	34.5	51.7	9.6
	5~9천만원 미만	468	5.9	31.5	52.8	9.8
	9천만원 이상	83	9.1	34.3	38.7	17.9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국세행정에 대한 인식 지표

□ (정기적인 탈세의 발각 가능성에 대한 인식) 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했을 때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79.3%가 대체로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해 많은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세적발 수위를 높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음

○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여성(18.7%)에 비해 남성(22.6%)이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남성은 과세관청이 소득세 탈세를 발각할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0.4%, 매우 높다는 응답이 2.2%였으며, 여성은 대체로 높다가 16.8%, 매우 높다가 1.9%로 나타남

○ 연령별 분포를 살펴봐도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었으며,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대~40대가 50~60대보다 발각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고, 응답 대상자의 중간 연령층인 40대가 낮다(매우 낮다 17.4%, 대체로 낮다 64.7%)고 응답한 비율이 82.1%로 가장 높았음

－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82%), 20대(81.7%), 30대(79%), 60대(76.5%), 50대(7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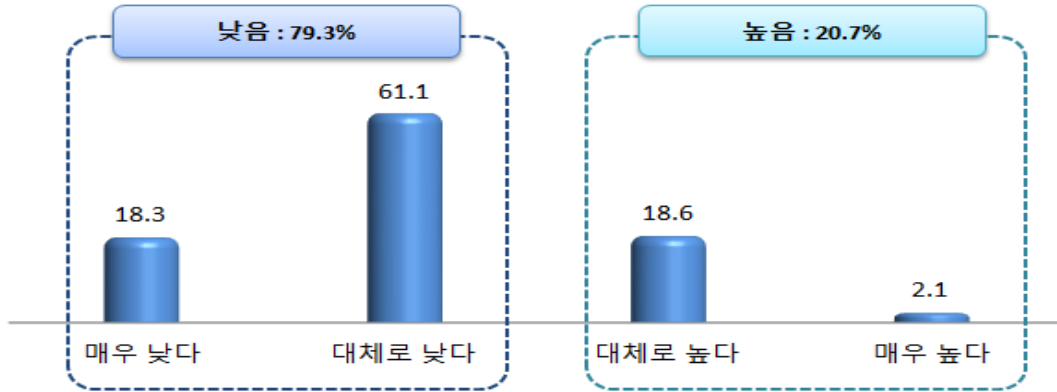
○ 거주지역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탈세 발각 가능성에 대한 응답비율 분포 역시 낮다는 의견이 많았음

○ 연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9천만원 이상 소득을 버는 응답자들의 높다(대체로 높다 21.1%, 매우 높다 3.9%)는 의견이 25%로 다른 소득수준 응답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소득수준별 높다는 의견은 9천만원 이상(25%), 1천만원 미만(21.2%), 1~5천만원 미만(20.6%), 5~9천만원(19.8%) 순임

[그림 Ⅲ-15] 소득세 정기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27〉 소득세 정기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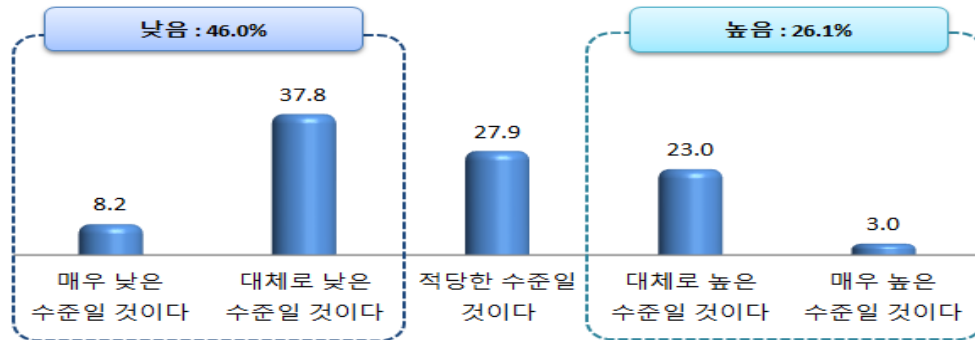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전체		2,299	18.3	61.1	18.6	2.1
성별	남성	1,262	18.8	58.5	20.4	2.2
	여성	1,037	17.8	63.6	16.8	1.9
연령	20대(25~29세)	292	19.3	62.4	16.2	2.1
	30대(30~39세)	613	17.3	61.7	19.6	1.4
	40대(40~49세)	683	17.4	64.7	16.0	2.0
	50대(50~59세)	544	19.8	56.2	21.1	2.9
	60대(60~64세)	167	18.8	57.7	21.3	2.2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19.4	61.8	17.5	1.4
	기타 광역시	695	19.5	58.6	20.1	1.8
	그 외 지역	481	15.6	61.6	19.5	3.3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18.2	63.3	17.0	1.5
	사업주/자영업자	472	18.6	58.4	19.7	3.3
	전업주부	154	17.6	61.8	18.0	2.7
	미취업자	114	20.2	57.9	20.0	1.9
	무급가족종사자	115	13.5	54.4	29.9	2.2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18.7	60.1	19.2	2.0
	1~5천만원 미만	1465	17.8	61.7	18.5	2.1
	5~9천만원 미만	468	19.6	60.6	18.0	1.8
	9천만원 이상	83	16.4	58.7	21.1	3.9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탈세 적발 시 벌금 등 처벌 수준) 탈세가 적발되었을 때 벌금 등의 처벌이 어떤 수준일지에 대한 응답 결과
- 사업소득을 미신고한 부분이 있음을 가정하고, 과세관청이 적발했을 때의 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8.2%, 대체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37.8%)이거나 적당한 수준(27.9%)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3.9%에 달함
 -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6%, 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27.9%였으며, 높은 수준(대체로 높은 수준일 것이다 23%,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다 3%)일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26%로 나타남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르면 전체 평균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는 기타 지역이, 다른 고용형태보다는 미취업자가, 연평균 소득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처벌수준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처벌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66.1%)였으며, 다음으로 30대(55.5%)도 높은 비율로 조사됨
 - 처벌이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대(33.4%), 40대(31.7%), 60대(25.4%)순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는 미취업자(55.6%)가 처벌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이어 임금근로자(50.4%), 전업주부(42.8%), 무급가족종사자(32.2%), 자영업자(31.4%) 순으로 조사됨
 - 연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처벌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처벌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1천만원 미만(48.7%), 1~5천만원 미만(46.2%), 5~9천만원 미만(43.2%), 9천만원 이상(4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6] 탈세 적발 시 벌금 등 처벌 수준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28〉 탈세 적발 시 벌금 등 처벌 수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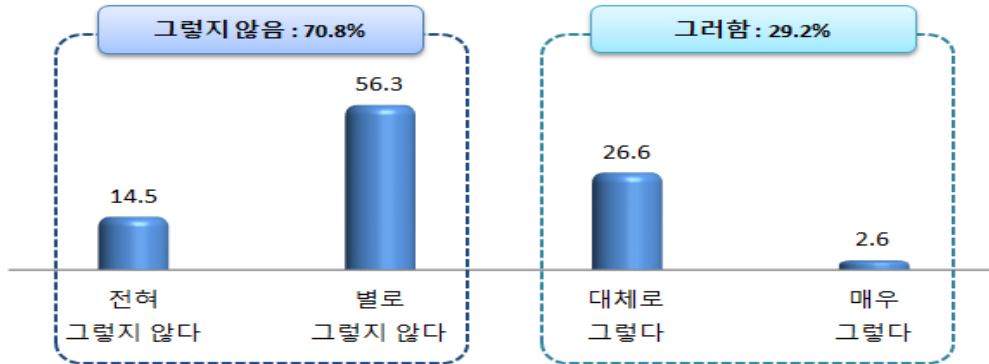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적당한 수준일 것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일 것이다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다
전체		2,299	8.2	37.8	27.9	23.0	3.0
성별	남성	1,262	8.4	37.4	28.8	22.2	3.2
	여성	1,037	8.1	38.2	27.0	23.8	2.9
연령	20대(25~29세)	292	15.3	50.8	22.4	10.5	1.1
	30대(30~39세)	613	8.2	47.3	23.9	18.7	2.0
	40대(40~49세)	683	6.4	30.6	31.2	29.3	2.4
	50대(50~59세)	544	6.2	31.1	29.3	27.4	6.0
	60대(60~64세)	167	9.8	30.1	34.7	21.9	3.5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7.7	36.4	30.2	22.7	3.0
	기타 광역시	695	8.9	38.2	28.3	21.3	3.3
	그 외 지역	481	8.6	39.9	23.8	24.9	2.8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9.4	41.0	25.9	21.0	2.6
	사업주/자영업자	472	7.5	23.9	30.2	32.0	6.5
	전업주부	154	7.4	35.4	29.4	25.1	2.7
	미취업자	114	6.6	49.0	30.1	13.4	0.9
	무급가족종사자	115	5.8	26.4	28.5	36.8	2.6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6.6	42.1	30.8	17.9	2.7
	1~5천만원 미만	1465	9.0	37.2	27.5	23.0	3.3
	5~9천만원 미만	468	7.8	35.4	26.4	27.6	2.7
	9천만원 이상	83	7.0	33.7	24.2	31.8	3.3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 응답자 10명 중 7명(70.8%)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4.5%, 별로 그렇지 않다 56.3%)고 응답함
 - － 과세관청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대체로 그렇다 26.6%, 매우 그렇다 2.6%)는 29.2%로 조사됨
 - 응답자 특성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남성은 68.3%, 여성은 73.4%가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20대의 경우 10명중 8명(83.2%)이나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답함
 - － 이어 30대(79.7%), 40대(70.9%), 50대(59.3%), 60대(53.1%)순으로 조사됨
 - 고용형태별로는 미취업자(75.9%)가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임금근로자(74.2%)가 높게 나타남
 - －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급가족종사자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도 10명중 4명(38.8%)이 과거보다 엄격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함
 - 연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1천만원 미만(73.9%), 1~5천만원 미만(71.2%), 5~9천만원 미만(67.1%), 9천만원 이상(65.2%)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7]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29〉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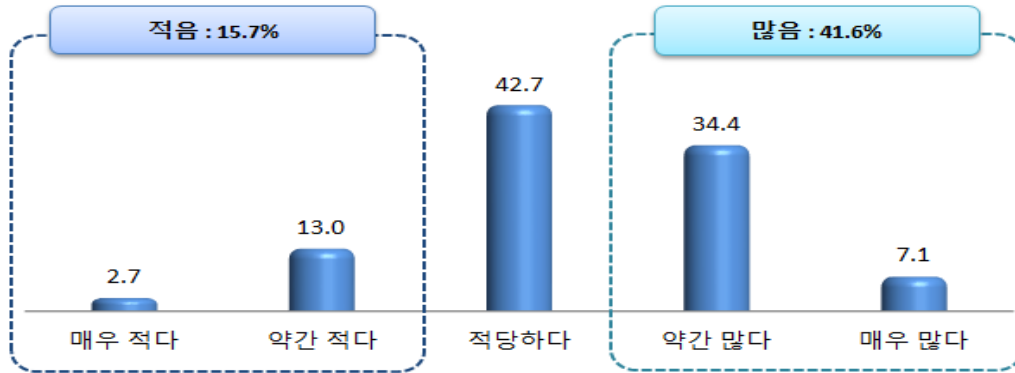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99	14.5	56.3	26.6	2.6
성별	남성	1,262	13.4	54.9	28.8	3.0
	여성	1,037	15.6	57.8	24.4	2.2
연령	20대(25~29세)	292	27.4	55.8	13.6	3.2
	30대(30~39세)	613	15.6	64.1	18.6	1.6
	40대(40~49세)	683	12.2	58.7	27.5	1.6
	50대(50~59세)	544	10.5	48.8	36.3	4.4
	60대(60~64세)	167	10.0	43.1	43.5	3.4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15.2	53.8	27.9	3.1
	기타 광역시	695	14.0	59.0	24.9	2.2
	그 외 지역	481	13.6	58.7	25.7	2.0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15.2	59.0	23.3	2.4
	사업주/자영업자	472	13.5	47.7	34.5	4.3
	전업주부	154	13.8	57.3	27.0	1.9
	미취업자	114	16.5	59.4	22.6	1.4
	무급가족종사자	115	6.1	45.6	44.2	4.0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16.1	57.8	23.8	2.3
	1~5천만원 미만	1465	14.1	57.1	26.1	2.7
	5~9천만원 미만	468	12.7	54.4	30.2	2.7
	9천만원 이상	83	21.8	43.4	32.6	2.2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납세협력부담에 대한 인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에 대한 응답 결과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납세 협력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양을 묻는 질문에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많다(약간 많다 34.3%, 매우 많다 7.1%)는 응답도 41.5%에 달함
 - 반면, 납세 협력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 적다(매우 적다 2.7%, 약간 적다 13%)는 응답비율은 15.7%에 불과함
 - 응답자 특성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타 지역보다는 수도권이, 다른 소득수준보다는 9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납세 협력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양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20대(50.1%), 30대(46.1%), 40대(45.2%), 50대(32.2%), 60대(26.3%) 순으로 조사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60대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3.9%가 적당하다고 응답함
 - 거주지역별로는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43.8%)고 답함
 - 고용형태에 따른 구분에서는 미취업자(43.9%), 자영업자(43.7%), 임금 근로자(42.3%) 순으로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든다고 조사됨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0명중 6명(61.3%)이 적당하다고 응답함
 -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9천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10명중 5명인 50.5%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18] 납세협력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30〉 납세협력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매우 적다	약간 적다	적당하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전체		2,299	2.7	13.0	42.7	34.4	7.1
성별	남성	1,262	2.5	14.0	42.4	33.0	8.1
	여성	1,037	3.0	11.9	43.1	35.8	6.2
연령	20대(25~29세)	292	2.9	14.3	32.7	37.6	12.5
	30대(30~39세)	613	2.5	13.1	38.3	37.1	9.0
	40대(40~49세)	683	1.2	10.7	43.0	39.3	5.9
	50대(50~59세)	544	3.7	14.7	49.4	27.2	5.0
	60대(60~64세)	167	6.0	13.8	53.9	23.1	3.2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2.5	11.8	41.9	36.6	7.2
	기타 광역시	695	2.4	14.8	44.3	32.8	5.7
	그 외 지역	481	3.4	13.6	43.0	32.0	8.0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1,444	3.0	12.6	42.2	34.8	7.5
	사업주/자영업자	472	1.5	12.0	42.9	34.8	8.9
	전업주부	154	3.4	14.0	44.8	33.3	4.6
	미취업자	114	3.5	15.7	36.9	36.4	7.5
	무급가족종사자	115	0.0	8.0	61.3	26.0	4.8
연평균 소득수준	1천만원 미만	283	1.0	14.6	39.1	36.1	9.1
	1~5천만원 미만	1465	3.5	13.4	44.3	32.7	6.1
	5~9천만원 미만	468	2.5	9.5	44.0	37.0	7.0
	9천만원 이상	83	2.4	14.8	32.3	38.0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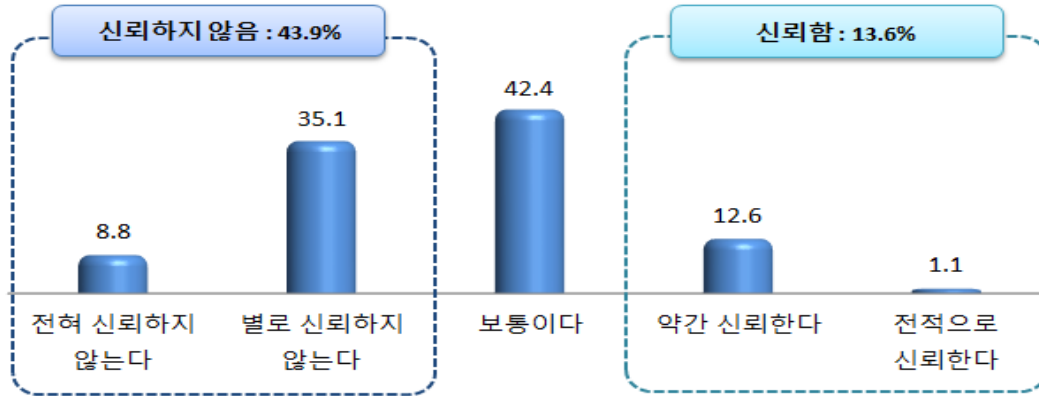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국세청 신뢰) 우리나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대한 신뢰 정도

-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8.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5.1%)는 응답이 43.9%였으며, 중간 입장인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2.4%로 과반수에 가까웠음
 - 반면, 국세청을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 12.6%, 전적으로 신뢰한다: 1.1%)고 답한 응답자는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여성(40.8%)보다는 남성(47%)이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45.5%)이 남성(39.4%)보다 높아 여성과 남성 모두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49.9%), 30대(49.8%), 40대(42.4%), 50대(38.2%), 60대(36.7%) 순이었음
 - 반면,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대가 19.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60대가 18.6%로 응답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형태별로는 미취업자가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근로자도 46.2%로 높게 나타남
 -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무급가족종사자가 2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9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47.4%로 가장 높게 조사됨

[그림 Ⅲ-19]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단위: %)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Ⅲ-31〉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

구분		응답 자 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전체		2,299	8.8	35.1	42.4	12.6	1.1
성별	남성	1,262	11.2	35.8	39.4	12.2	1.4
	여성	1,037	6.4	34.4	45.5	12.9	0.7
연령	20대(25~29세)	292	14.3	35.6	41.4	8.4	0.3
	30대(30~39세)	613	10.4	39.4	40.3	9.5	0.4
	40대(40~49세)	683	8.3	34.1	44.2	12.9	0.6
	50대(50~59세)	544	5.8	32.4	42.6	17.5	1.8
	60대(60~64세)	167	5.1	31.6	44.7	14.0	4.6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8.0	36.1	42.6	12.3	0.9
	기타 광역시	695	7.2	36.7	42.5	12.7	0.9
	그 외 지역	481	11.3	32.4	42.1	12.8	1.4
고용형 태	임금근로자	1,444	10.0	36.2	41.3	11.7	0.8
	사업주/자영업자	472	9.7	29.9	41.1	15.7	3.6
	전업주부	154	2.7	37.2	47.9	11.8	0.5
	미취업자	114	11.0	36.8	42.7	9.5	0.0
	무급가족종사자	115	6.2	30.8	39.4	23.4	0.2
연평균 소득수 준	1천만원 미만	283	7.4	39.5	41.4	10.6	1.1
	1~5천만원 미만	1465	9.1	34.2	43.9	11.7	1.1
	5~9천만원 미만	468	7.7	34.3	40.4	16.7	0.9
	9천만원 이상	83	21.6	25.8	35.8	15.6	1.2

출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분석 결과

가. 주요 납세의식 관련 지표 분석

- ☐ 납세의식 관련 지표의 수준을 보면 성실납세의향 지표는 평균 51.5점으로 조사됨
 -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평균 32점으로 성실납세의향 지표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자신의 행동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인해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성실납세의향 지표보다 낮을 수 있음
- ☐ 조세제도의 형평성 지표는 평균 37점으로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본인의 세부담은 유사한 소득을 버는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임
 - 특히 수직적 형평성 관련해서는 세부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 사회적 규범 지표는 평균 53점으로 조사됨
 - 사회적 규범 지표가 낮은 이유는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임
 -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시 탈세나 조세회피에 연루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지만 ‘당시의 사회적 관습’ 등의 이유로 별 문제없이 통과되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회적 규범을 심어줄 수 있음

〈표 Ⅲ-32〉 납세의식 관련 지표들의 점수

지표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성실납세의향 (p_var)	51.5	40.1	0	100
조세형평성 (equity)	37.0	21.1	0	100
사회적 규범 (snorm)	53.0	25.0	0	100
조세 이해도 (u_var)	58.6	28.6	0	100
납세순응행위 (bvar)	32.0	35.1	0	100

자료: 저자 작성

- ☐ 아래에서는 각 지표들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기타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비교함
- ☐ (성실납세의향 지표) 성실납세의향 지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기타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성실납세의향 점수는 40대가 가장 낮고 20~30대가 중간, 50대 및 6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서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가장 높고, 대졸 이상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연령대별 성실납세의향 점수는 유사한 정보를 내포함
 - 소득수준의 경우도 저소득층에서 성실납세의향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짐
 - 이념적 성향을 보면, 보수층에 가까울수록 성실납세의향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복권구입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영업자보다는 비자영업자의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높게 조사됨
- 정기적 탈세의 적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높게 조사됨
- 납세협력부담이 높다고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높게 조사됨

□ (조세형평도 지표) 조세형평도 지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기타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형평도 점수가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조세형평도 점수는 20~40대보다는 50~60대에서 조세형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서 조세형평도 점수가 가장 높고, 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학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연령대별 조세형평도 점수도 유사한 정보를 내포함
- 이념적 성향을 보면, 보수층에 가까울수록 조세형평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복권구입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조세형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비자영업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조세형평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세형평도 점수가 높게 조사됨
- 정기적 탈세의 적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세형평도 점수가 높게 조사됨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들의 조세형평도 점수가 높게 조사됨
 - 납세협력부담이 보통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세형평도 점수가 높게 조사됨
- (사회적 규범 지표) 사회적 규범 지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기타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규범 점수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연령대별로 보면, 사회적 규범 점수는 20~30대에서 50~60대보다 사회적 규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서 사회적 규범 점수가 가장 낮고, 고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사회적 규범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복권구입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사회적 규범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영업자보다는 비자영업자의 사회적 규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규범 점수가 높게 조사됨
 - 정기적 탈세의 적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규범 점수가 높게 조사됨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들의 사회적 규범 점수가 높게 조사됨
 - 납세협력부담이 낮다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 점수가 높게 조사됨
- (조세이해도 지표) 조세이해도 지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기타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세이해도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조세이해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이해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이해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복권구입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조세이해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보다 조세이해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이해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에 대한 신뢰 수준이나 정기적 탈세의 적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조세이해도 점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정기적 탈세의 적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세이해도 점수가 높게 조사됨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다고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조세이해도 점수가 높게 조사됨
 - 납세협력부담이 낮다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조세이해도 점수가 높게 조사됨
- (납세순응행위 지표) 납세순응행위 지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기타 변수들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납세순응행위 점수는 성별, 연령대별, 소득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로 보면, 납세순응행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 계층의 납세순응행위 점수가 다른 교육수준 계층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복권구입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납세순응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 간에는 납세순응행위 점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납세순응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으면 납세순응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기적 탈세의 적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납세순응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납세협력부담이 낮다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납세순응행위 점수가 높게 조사됨

〈표 III-33〉 주요 인구특성별 비경제적 요인 변수 차이

구 분		응답자 수 (명)	성실납세 의향 (p_var)	조세 형평성 (equity)	사회적 규범 (snorm)	조세 이해도 (u_var)	납세순응 행위 (bvar)
전체		2,299	51.5	37.0	53.0	58.6	32.0
성별	여성	1,037	54.2	35.8	53.8	54.9	31.8
	남성	1,262	48.9	38.1	52.2	62.3	32.1
연령	20대	292	53.0	34.9	55.3	60.4	34.4
	30대	613	49.0	34.9	54.2	57.6	28.6
	40대	683	45.8	37.0	52.2	57.8	32.8
	50대	544	56.3	38.7	51.7	60.4	31.4
	60대	167	64.9	42.2	51.4	57.2	38.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4	78.0	36.7	47.7	51.2	49.1
	고졸	490	55.7	40.2	53.6	55.5	33.7
	대졸	1,538	49.0	35.9	52.6	59.6	30.1
	대학원 이상	227	52.3	36.1	54.6	61.4	37.7
소득 수준	3천만 미만	1,015	53.8	37.3	53.6	55.1	33.6
	7천만 미만	1,092	49.8	36.8	52.7	62.4	30.4
	7천만 이상	192	46.1	35.2	49.9	60.9	30.1
이념적 성향	보수(0~3)	342	56.6	41.2	52.0	59.5	34.3
	중립(4~6)	1,474	52.1	37.0	53.9	57.2	31.7
	진보(7~10)	483	45.6	33.7	50.7	62.6	31.3
복권 구입 유무	경험 없음	819	57.1	37.8	54.2	56.7	34.9
	경험 있음	1,480	48.1	36.5	52.2	59.8	30.2
자영 업자 여부	비자영업자	1,827	52.7	36.6	53.5	57.5	31.6
	자영업자	472	45.6	38.6	50.2	64.3	33.7

〈표 Ⅲ-33〉의 계속

구 분		응답자 수 (명)	성실납세 의향 (p_var)	조세 형평성 (equity)	사회적 규범 (snorm)	조세 이해도 (u_var)	납세순응 행위 (bvar)
배우자 유무	없음	777	52.8	38.0	55.1	56.5	35.2
	있음	1,522	50.9	36.4	51.8	59.7	30.3
국세청 신뢰도	낮음	1,009	43.7	30.0	47.6	58.6	27.4
	높음	1,290	57.6	42.4	57.2	58.6	35.6
탈세적발 가능성	낮다	1,830	48.8	34.1	50.0	58.3	30.6
	높다	469	61.8	47.9	64.2	59.8	37.3
처벌 강도	낮다	1,042	49.9	33.0	48.9	58.2	29.7
	보통	630	56.5	42.0	57.1	57.8	37.2
	높다	627	49.0	38.5	55.7	60.3	30.5
납세 협력 부담	낮다	347	51.7	34.1	46.5	55.2	29.5
	보통	999	54.7	41.8	54.1	61.6	33.3
	높다	953	45.2	33.6	53.7	61.2	30.3

주: 1. 음영은 유의수준 10% 내에서 특성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

2. 연령 구분에서 20대는 25~29세, 60대는 60~64세를 의미

3. 교육 수준에서 대졸은 전문대졸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 저자 작성

나.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

- 먼저, 종속변수인 납세순응행위 변수(bvar)에 대하여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의 비경제적 요인만을 설명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모형 A의 결과를 살펴봄
 -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성실납세의향 변수(p_var) 및 사회적 규범 변수(snorm)는 1% 유의수준 아래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형평성 변수(equity), 조세이해도 변수(u_var1), 국세청 신뢰 변수는 5% 유의수준 아래서 납세순응행위에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 조세이해도 변수는 주관적인 지식 수준에 관한 변수만을 사용하였고, 객관적인 지식 수준 관련 변수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서 변별력이 낮은 상태여서 분석에서 제외시킴
 -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의 비경제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 다만, 비경제적인 요인들 이외에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학력, 소득수준 등도 이런 비경제인 요인들을 통해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형 B에서는 조세행정 관련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배우자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자영업자 여부, 학력 및 소득수준, 이념적 성향 변수를 통제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였음에도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의 비경제적 요인들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비경제적인 요인들 외에 모형 B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자영업자보다는 자영업자인 경우에 납세순응행위 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음
 - －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4〉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A	모형 B
비경제적 요인	성실납세의향	p_var	0.0163***	0.0167***
			(0.0011)	(0.0011)
	사회적 규범	snorm	0.0048***	0.0047***
			(0.0017)	(0.0018)
	조세형평성	equity	0.005**	0.0044**
			(0.002)	(0.0021)
	조세이해도	u_var1	0.199**	0.1954**
			(0.0837)	(0.0867)
	국세청 신뢰 (신뢰 =1)		0.1878**	0.2018**
		(0.0894)	(0.0933)	
제도적 · 행정적 변수	탈세발각 가능성 (높다=1)			0.0158
				(0.1117)
	처벌강도	보통		0.0633
				(0.1069)
		높음		-0.0964
				(0.1098)
	납세협력부담	보통		0.0516
				(0.1289)
		높음		0.116
				(0.1301)
외생 변수	성별 (남성=1)			0.1076
				(0.0879)
	배우자 여부 (있음=1)			-0.0593
				(0.1494)
	연령	30대		0.1162
			(0.1604)	

〈표 III-34〉의 계속

구분			모형 A	모형 B
		40대		-0.1076
			(0.1753)	
		50대		0.1394
			(0.222)	
		60대		-0.238**
			(0.1074)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0.2691**
			(0.1067)	
	지역 (수도권=1)			-0.0586
			(0.0991)	
	교육수준 (대졸이상=1)			-0.0251
			(0.1078)	
	소득수준	3천만원 이상 ~ 7천만 미만		-0.0774
			(0.0962)	
		7천만 이상		-0.0521
			(0.166)	
	이념성향	중립(4~6)		-0.121
			(0.1225)	
		진보(7~10)		-0.0459
			(0.1453)	
Pseudo R ²			0.0720	0.0776
분석 모형			순서형로짓모형	순서형로짓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출처: 저자 작성

다. 성실납세성향,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 먼저, 협의의 납세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실납세의향 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기적인 탈세는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처벌강도가 낮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크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납세협력부담이 작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 남성은 여성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50~60대인 사람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자영업자들은 비자영업자에 비해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이념적 성향이 보수인 사람들은 중립이나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성실납세의향 변수를 구성하는 세부 변수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바, 국세청 신뢰 변수와 정기적인 탈세의 발각 가능성 변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속변수: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드는 생각과 관련된 변수(성실납세의향 1, p_var1)
 - 납세협력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및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동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지니고, 연령대가 50~60대인 경우에 대해서는 동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속변수: 조세회피의향과 관련된 변수(성실납세의향 2, p_var2)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인 경우에는 동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표 III-35〉 성실납세성향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구분			성실납세의향 (p_var)	성실납세의향1 (p_var1)	성실납세의향2 (p_var2)
국세청 신뢰 (신뢰 =1)			0.5617***	0.5606***	0.4199***
			(0.084)	(0.0935)	(0.0921)
제도적 · 행정적 변수	탈세발각 가능성 (높다=1)		0.5267***	0.5996***	0.3057***
			(0.1046)	(0.1147)	(0.1147)
	처벌강도	중간	-0.0803	-0.0786	-0.0675
			(0.1001)	(0.1119)	(0.111)
		높음	-0.2479**	-0.0517	-0.3532***
			(0.1025)	(0.1139)	(0.1122)
	납세협력 부담	중간	-0.0061	-0.1205	0.0905
			(0.1201)	(0.1319)	(0.1314)
		높음	-0.2495**	-0.4507***	0.0009
			(0.1205)	(0.1331)	(0.1313)
외생 변수	성별 (남성=1)		-0.1448*	0.0613	-0.3063***
			(0.0817)	(0.0918)	(0.0905)
	연령	30대	-0.041	-0.1147	0.0574
			(0.1415)	(0.1576)	(0.1561)
		40대	-0.1188	-0.0884	-0.098
			(0.1517)	(0.1687)	(0.1665)
		50대	0.3409**	0.3543*	0.2734
			(0.1637)	(0.1818)	(0.1808)
		60대	0.4683**	0.5613**	0.264
			(0.2103)	(0.2316)	(0.2303)
	배우자 유무 (있음=1)		-0.152	-0.0648	-0.2222**
			(0.1003)	(0.1126)	(0.1112)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0.3187***	-0.4559***	-0.119
			(0.1013)	(0.1143)	(0.1102)

〈표 Ⅲ-35〉의 계속

구분		성실납세의향 (p_var)	성실납세의향1 (p_var1)	성실납세의향2 (p_var2)	
	지역 (수도권=1)		-0.0067	-0.0015	-0.0071
			(0.0929)	(0.1039)	(0.1027)
	교육수준 (대졸이상=1)		-0.0905	-0.0774	-0.0884
			(0.1016)	(0.1127)	(0.1121)
	소득 수 준	3천만이상 ~7천만미만	0.0354	0.1658*	-0.0968
			(0.09)	(0.1005)	(0.099)
		7천만 이상	-0.0303	-0.0077	-0.0379
			(0.1579)	(0.1736)	(0.1695)
	이 념 성 향	중립(4~6)	-0.14	-0.1587	-0.0734
			(0.1156)	(0.1284)	(0.1279)
		진보(7~10)	-0.3268**	-0.1972	-0.3598**
			(0.1365)	(0.1513)	(0.1496)
상수			-0.1741	0.4837**	
			(0.2259)	(0.2247)	
Pseudo R2		0.0351	0.0526	0.0322	
모형		순서형로짓모형	로짓모형	로짓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출처: 저자 작성

- 다음, 사회적 규범 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기적인 탈세는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실납세의향 점수처럼 사회적 규범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처벌강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

들은 납세협력부담이 크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음

- 연령대가 60대인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자영업자들은 비자영업자에 비해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나머지 변수들(교육수준, 수도권 거주 여부, 소득수준, 이념적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사회적 규범 변수의 하위 변수들인 기술적 사회규범과 명령적 사회규범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국세청에 대한 신뢰 변수 및 정기적인 탈세는 발각 가능성 인식 변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종속변수: 타인(일반 국민, 주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사회 규범(d_snorm)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보통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술적 사회규범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연령대가 60대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술적 사회규범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종속변수: 불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의 존재, 나의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친구들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명령적 사회 규범(p_snorm)
 - 납세협력부담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동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표 Ⅲ-36〉 사회적 규범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구분			사회적 규범 (snorm)	기술적 규범 (d_snorm)	명령적 규범 (p_snorm)
국세청 신뢰 (신뢰 =1)			0.4922***	0.4644***	0.3344***
			(0.0825)	(0.0866)	(0.0891)
제도적· 행정적 변수	탈세발각 가능성 (높다=1)		0.8453***	0.5259***	0.9065***
			(0.104)	(0.1104)	(0.1163)
	처벌강도	중간	0.2702***	0.2799***	0.0844
			(0.0986)	(0.1046)	(0.1075)
		높음	0.2099**	0.1715	0.1290
			(0.0988)	(0.105)	(0.1078)
	납세협력부담	중간	0.3089***	0.1488	0.3490***
			(0.1172)	(0.1239)	(0.1263)
		높음	0.4031***	0.1933	0.4802***
			(0.1171)	(0.1243)	(0.1267)
외생 변수	성별 (남성=1)		-0.0535	0.0102	-0.1297
			(0.0805)	(0.085)	(0.0874)
	연령	30대	-0.0713	0.0223	-0.1482
			(0.138)	(0.147)	(0.1514)
		40대	-0.1885	-0.0369	-0.227
			(0.1475)	(0.1574)	(0.1617)
		50대	-0.2443	-0.0681	-0.3115*
			(0.1601)	(0.1703)	(0.1751)
		60대	-0.4665**	-0.4083*	-0.2520
			(0.2022)	(0.214)	(0.2212)
	배우자 유무 (있음=1)		-0.1885*	-0.2488**	-0.0245
			(0.0982)	(0.1044)	(0.1077)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0.2612***	-0.3565***	-0.0528
			(0.0997)	(0.105)	(0.1077)

〈표 III-36〉의 계속

구분		사회적 규범 (snorm)	기술적 규범 (d_snorm)	명령적 규범 (p_snorm)	
	지역 (수도권=1)		0.0821	-0.0266	0.1534
			(0.0915)	(0.0962)	(0.099)
	교육수준 (대졸이상=1)		0.0288	0.1165	-0.0164
			(0.0995)	(0.1043)	(0.109)
	소득 수준	3천만 이상 ~7천만 미만	0.0352	0.0253	0.0134
			(0.0887)	(0.0935)	(0.0961)
		7천만 이상	0.0107	-0.1527	0.1649
			(0.1572)	(0.1613)	(0.1657)
	이념 성향	중립(4~6)	0.0546	-0.0438	0.1075
			(0.1143)	(0.1218)	(0.1234)
		진보(7~10)	-0.1687	-0.2174	-0.0619
			(0.1343)	(0.1425)	(0.1445)
Pseudo R2		0.0327	0.0286	0.0336	
분석모형		순서형로짓모형	순서형로짓모형	순서형로짓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출처: 저자 작성

□ 조세제도의 형평성 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기적인 탈세는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실납세의향 점수 및 사회적 규범 점수처럼 조세형평도 변수의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처벌강도가 높거나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조세형평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납세협력부담이 크거나 작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조세형평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 성별 가운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세형평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조세형평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조세형평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자들은 중립이거나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자들보다 조세형평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나머지 변수들(자영업자 여부, 교육수준, 수도권 거주 여부,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조세형평성 변수의 구성요소인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교환의 형평성 변수들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각각의 형평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종속변수: 수직적 형평성 변수
 - 정기적 탈세의 발각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우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남자인 경우, 고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직적 형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종속변수: 수평적 형평성 변수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납세협력부담을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고소득 계층인 경우,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인 경우에는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종속변수: 교환의 형평성 변수

- 정기적 탈세의 발각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교환의 형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납세협력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표 III-37〉 조세형평성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구분			조세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교환의 형평성
국세청 신뢰 (신뢰 =1)			0.8588*** (0.0829)	0.6677*** (0.1292)	0.5838*** (0.0914)	0.9689*** (0.1075)
제도적· 행정적 변수	탈세발각 가능성 (높다=1)		0.8702*** (0.1024)	1.0751*** (0.1267)	-0.0763 (0.1154)	0.7627*** (0.1155)
	처벌강도	중간	0.3011*** (0.0973)	0.4425*** (0.1454)	0.2786** (0.1123)	0.1461 (0.1199)
		높음	0.0719 (0.0989)	0.3631** (0.1495)	-0.0687 (0.1105)	0.0114 (0.1259)
	납세협력부담	중간	0.3355*** (0.1156)	0.0957 (0.1824)	0.5384*** (0.1303)	0.12 (0.1449)
		높음	-0.1887 (0.1167)	-0.0128 (0.1878)	-0.0559 (0.128)	-0.437*** (0.1528)
	성별 (남성=1)		0.1749** (0.08)	0.2586** (0.1207)	0.0801 (0.0905)	0.1532 (0.101)
	연령	30대	0.1529 (0.1361)	0.3117 (0.2208)	0.0499 (0.1607)	0.0494 (0.1787)
		40대	0.2522* (0.146)	0.396* (0.2324)	0.0536 (0.1717)	0.2419 (0.189)

〈표 III-37〉의 계속

구분			조세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교환의 형평성
		50대	0.307*	0.6292**	-0.1086	0.418**
			(0.1586)	(0.2467)	(0.184)	(0.201)
		60대	0.4302**	0.8627***	0.1115	0.3359
			(0.203)	(0.2946)	(0.2352)	(0.248)
	배우자 유무 (있음=1)		-0.3901***	-0.3981***	-0.3513***	-0.1619
			(0.0967)	(0.1444)	(0.1125)	(0.123)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0.0278	0.0039	0.0229	-0.0176
			(0.0982)	(0.1396)	(0.1105)	(0.1214)
	지역 (수도권=1)		-0.0075	-0.0825	-0.03	0.0679
			(0.0904)	(0.1376)	(0.1019)	(0.1134)
	교육수준 (대졸이상=1)		-0.091	-0.0255	-0.037	-0.0294
			(0.0988)	(0.1434)	(0.1127)	(0.1209)
	소득 수준	3천만원 이상~7천 만 미만	0.0098	0.2038	-0.1427	-0.0036
			(0.087)	(0.1302)	(0.0998)	(0.1084)
		7천만 이상	-0.1231	0.558***	-0.7375***	0.0082
			(0.1559)	(0.2113)	(0.1653)	(0.191)
	이념 성향	중립(4~6)	-0.1841	-0.1552	-0.0015	-0.3214**
			(0.1132)	(0.157)	(0.1272)	(0.134)
		진보(7~10)	-0.3948***	-0.2777	-0.3276**	-0.2773*
			(0.1333)	(0.1939)	(0.147)	(0.1622)
상수				-2.7411***		
				(0.314)		
Pseudo R2			0.0539	0.0979	0.0482	0.0790
분석모형			순서형 로짓모형	로짓모형	순서형 로짓모형	순서형 로짓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출처: 저자 작성

라. 국세청 신뢰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 일반 국민들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종속변수는 국세청 신뢰 더미 변수와 국세청에 대한 신뢰 수준이 5단계인 변수로 나눠서 살펴봄
 - － 국세청 신뢰 더미는 국세청을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경우와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 0의 값을, 국세청을 신뢰하는 정도가 ③ 보통인 경우, 국세청을 ④ 약간 신뢰하거나 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짐
- 국세청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위의 두 가지 종속변수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음
 - 국세청에 대한 신뢰는 정기적인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경향이 있음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처벌강도가 보통이거나 높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더 국세청을 신뢰하는 경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임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납세협력부담이 작거나 크다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국세청을 신뢰하는 경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임
 -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이 국세청을 신뢰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국세청의 신뢰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국세청의 신뢰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 종속변수가 5단계 변수인 경우에는 이념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워질수록 국세청의 신뢰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Ⅲ-38〉 외생변수가 국세청 신뢰 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변수: 국세청 신뢰	
			더미 변수 (trust1)	5단계 변수 (q17)
제도적·행정적 변수	탈세 발각 가능성 (높다=1)		1.0395***	1.1232***
			(0.1295)	(0.1063)
	처벌강도	중간	0.8267***	0.7081***
			(0.1151)	(0.0996)
		높음	0.4982***	0.7002***
			(0.1151)	(0.1035)
	납세협력부담	중간	0.7991***	0.6598***
			(0.1351)	(0.1202)
높음		0.0821	0.1152	
		(0.1356)	(0.121)	
외생 변수	성별 (남성=1)		-0.2995***	-0.2969***
			(0.095)	(0.0824)
	배우자 유무 (있음=1)		-0.2913*	-0.2403*
			(0.1628)	(0.1415)
	연령	30대	-0.1348	-0.1325
			(0.1744)	(0.151)
		40대	0.0131	0.0827
			(0.1892)	(0.164)
		50대	-0.0051	0.1807
			(0.2443)	(0.2126)
		60대	0.1176	0.141
			(0.1163)	(0.1008)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0.1457	0.1628
			(0.1178)	(0.1028)
	지역 (수도권=1)		0.0142	0.0068
			(0.1076)	(0.0941)
	교육수준 (대졸이상=1)		-0.1517	-0.127
			(0.1191)	(0.1026)

〈표 III-38〉의 계속

구분			종속변수: 국세청 신뢰	
			더미 변수 (trust1)	5단계 변수 (q17)
	소득 수준	3천만 이상 ~7천만 미만	0.042	0.0852
			(0.105)	(0.0904)
		7천만 이상	-0.1972	-0.1779
			(0.1783)	(0.1605)
	이념 성향	중립(4~6)	0.0114	-0.276**
			(0.1351)	(0.1184)
		진보(7~10)	-0.3155**	-0.4983***
			(0.157)	(0.14)
상수			-0.3165	
			(0.2313)	
Pseudo R2			0.1010	0.0694
분석방법			로짓모형	순서형로짓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출처: 저자 작성

Ⅳ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결과 요약

-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바,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의향,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결과는 성별,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학력, 소득, 이념적 성향 등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탈세 발각 가능성,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납세협력부담 등 과세행정 관련 변수들을 통제해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납세의식 관련 변수들의 결정요인 분석) 납세의식과 관련이 있는 성실납세의향이나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기적인 탈세는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의향이나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관계는 성별,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학력, 소득, 이념적 성향 등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납세협력부담 등 기타 과세행정 관련 변수들을 통제해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에 대한 신뢰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납세순응행위와 더불어서 성실납세의향과 사회적 규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국세청 신뢰 변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높아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정기적인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보통이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2. 분석 결과의 시사점

-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나타내는 성실납세의향, 사회적 규범,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임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 ☐ 일반 국민들이 성숙한 납세의식, 즉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마음 자세와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이 사회 구성원의 납세순응행위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실납세의향 및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기 때문임
- ☐ 국세청에 대한 신뢰 외에도 정기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 틀림없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성실납세의향과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탈세 발각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사후적인 법 집행도 중요한 수단이며 사전적으로 탈세를 못하게 만드는 과세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국세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는 과세행정 관련 변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보통이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국민들이 체감하는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과거의 관행으로 불리며 조세회피 행위가 정당화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의 실태에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알려서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은 세부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임
- 또한 일상생활의 상거래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된 거래에 응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납세의식 관련 지표 중 성실납세의향 지표보다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더 점수가 낮은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 백웅기 · 류덕현 · 박명호 · 이우진 「정부신뢰와 납세순응 · 재정지출 효율성 · 공정성」, 한국개발연구원, 2016(예정).
-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이혜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2.
- Alm, J., Sanchez, I., & De Juan, A.,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in tax compliance,” *Kyklos*, 48(1), 1995, 1–18.
- Allingham, M. G. and Sandmo, A.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1972, pp.323–338.
- Kim, C., “Does Fairness Matter in Tax Report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3, No. 4, 2002, pp.771–785.
- OECD, “Understanding and Influencing Taxpayers’ Compliance Behaviour”, 2010.
- Spicer, M.W. and L.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Vol. 33, 1980, pp.171–175.
- Torgler, B., “Tax Morale and Compliance: Review of Evidence and Case Studies for Europ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922, 2011.
- Wenzel, M., “An Analysis of Norm Processe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5, No. 2, 2004, pp.213–228.

부록: 납세의식 조사와 관련된 설문지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DN의 ○○○ 조사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향후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시간은 약 1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 조사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담당자 전소라 02-2183-9135)

※ 설문조사 응답대상이 되시는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1. 성별 : ① 남 ② 여

SQ2.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25세~ 만64세까지 진행

SQ3.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임금근로자 ② 사업주/자영업자 ③ 전업주부 ④ 미취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

Part I.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2. 귀하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3. 귀하는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4. 만약 귀하께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귀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Part II. 조세 이해도/경험

문5. 귀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③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공급가액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모른다

문7. 귀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최저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신지요?

- ① 금액에 상관없는 모든 거래 금액 ② 1천원 ③ 5천원 ④ 1만원 ⑤ 모른다

Part III. 납세순응도/납세윤리

문8. 귀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①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 ②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
③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④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문9. 귀하는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Part IV.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문10.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11. 귀하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귀하의 세금 부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③ 비슷한 수준이다
④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문12. 귀하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③ 적당한 수준이다
④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Part V. 조세행정 및 처벌에 대한 인식

- 문13. 귀하는 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다 ③ 대체로 높다 ④ 매우 높다
- 문14. 귀하가 사업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것이 과세관청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할 때,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② 대체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③ 적당한 수준일 것이다
 ④ 대체로 높은 수준일 것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다
- 문15. 최근 과세관청이 과거에 비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문16.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의 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다 ② 약간 적다 ③ 적당하다 ④ 약간 많다 ⑤ 매우 많다
- 문17. 귀하는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인 국세청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신뢰한다 ⑤ 전적으로 신뢰한다

Part VI: 가상적 납세순응행위

- 문18.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천만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통한 매출액이었고, 나머지 1천만원은 현금 매출액이었습니다. 현금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 제3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적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을 정직하게 그대로 신고하시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19. 귀하가 50만원의 가전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②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이므로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

Part VII: 인구통계특성 질문

DQ1.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이상

DQ2. 귀하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DQ3. 귀하는 지난 1년간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② 가끔씩 구입하고 있다 ③ 전혀 구입한 적이 없다

DQ4. 귀하의 이념적 성향을 종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0은 가장 보수적, 10은 가장 진보적)

보수					중립				진보	
0	1	2	3	4	5	6	7	8	9	10

DQ5. 귀하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얼마입니까?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수령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 ① 소득 없음 ② 1천만원 미만
 ③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④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⑤ 5천만원 ~ 7천만원 미만 ⑥ 7천만원 ~ 9천만원 미만
 ⑦ 9천만원 ~ 1억 1천만원 미만 ⑧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미만
 ⑨ 1억 3천만원 이상

☞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전화번호	조사원 성명	조사일시
			____월 ____일